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8호
2023년 4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남은 삶 사회위해 신명 받칠 터” ~ ‘국민배우’ 안성기 4·19 민주평화상 수상



2023년 4월 19일(수)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최 서울대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제정한 제 4회 ‘4·19 민주평화상’을 수상했다. 안성기는 이날 모자를 벗고 시상식에 나와 “이제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인규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장, 아들 안필립, 안성기, 배우 박중훈,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관련기사=3면>

“라스베가스에서 만나뵙요” 유홍림 신임 총장 평의원 회의 참석 “자유와 신뢰의 플랫폼 기반으로 미래 개척”

“모교의 발전을 늘 성원해 주시는 미주 동문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유홍림 모교 신임 총장이 오는 6월 9일(금)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하는 미주 동창회 제 32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다. 유 총장은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서울대가 자유와 신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든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특히 “미주 지역에서 수십 년 간 각고의 노력으로 탄탄한 경제·

사회적 기반을 다진 동문들의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유의한 자신이 될 것”이라며 동문들과의 인적·학술적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올해에도 이음장학생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남가주를 방문한 1기 이음장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연례 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음장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미국방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미주 동문들의 협조와 도움을 당부한 부분은 창업관련 네트워킹 구축이다. 미주 동창회의 스타트업 라운드테이블은 모교의 창업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유 총장은 창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미주 동문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950~60년대 시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한 유 총장은 서울대는 물론 한국의 고속성장은 이 프

로젝트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의료지원과 의술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유 총장은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많은 동문들을 만나 보다 포괄적이고 유의한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4~5면>

라스베가스 동창회 호텔 예약
Westgate Las Vegas Resorts
<https://book.passkey.com/go/SSNU3R>

SNUAA 스칼러 장학생 프로그램 모두 110명 신청, 11대1 경쟁률

지난 3월 31일 마감된 제 2회 SNUAA 스칼러 장학생 프로그램에 모두 110명이 지원, 지난해보다 거의 30명이나 늘어나 11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미주 동창회는 신청자 가운데 10명을 선정, 1인당 1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 박사는 오는 6월 9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제 3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시상한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장학생 10명을 줌으로 연결해 동문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갖겠다고 밝혔다.

황효숙(사대 65) 동문 미주 동창회 18대 회장 출마

미네소타의 황효숙(사대 65) 동문이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 18대(차차기 회장) 미주 동창회 회장 최종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미네소타 지부 회장을 지낸 황 동문은 젊은 세대에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 폭동 당시 한인회장을 맡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오는 6월 9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평의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18대 회장을 맡게 된다.

<관련기사=9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QS 세계대학 전공별 평가 서울대 30위권내에 13개 분야 '관목 성장' 현대언어 15위 · 화학공학 17위 · 기계공학 26위 · 간호학 27위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3 QS 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모교의 37개 전공이 50위내에 올랐다. 현대언어학은 모교 전공 중 가장 높은 15위를 기록했다.

현대언어학은 라틴어, 그리스어 등 고대 언어와 구별되는 언어를 공부하는 학문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영어를 제외한 언어 관련 전공이 해당된다. 서울대는 이를 현대언어 관련 학과를 다양하게 두고 있고, 별도 학과가 없는 일본어, 중국어, 동남아 언어도 아시아문명학부에서 다루고 있다.

화학공학(17위), 사회정책·관리(20위)도 상위에 랭크됐다. 컴퓨터공학은 35위에서 32위로 소폭 올랐다.

48위를 기록한 영문학은 지난해보다 무려 18계단이나 올라 가장 상

승폭이 컸다. 환경과학도 지난해 44위에서 32위로 12계단 상승했다.

서울대는 의학·간호학·생명과학 등이 포함된 의학 분야에서 아시아 대학 중 가장 높은 2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QS 학문분야별 평가는 올해 54개 전공을 놓고 세계대학을 평가했다. 올해 데이터사이언스, 미술사, 마케팅 전공이 추가됐다. 평가지표는 학계평판도와 고용주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도, H-인덱스(교수당 논문수, 인용빈도), 국제연구협력 등 5개 항목으로 전공마다 반영하는 비중이 다르다. 고고학은 학계 평판도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주요 분야별 미국대학의 랭킹(10위내)을 함께 조사해 비교해 봤다. 괄호안은 세계대학 순위.

현대언어 Modern Languages

하버드(3) · 스탠퍼드(4) · UC 버클리(5) · 예일(5) · UCLA(7) · MIT(10) · 서울대(15)

영문학 English Literature

하버드(3) · UC 버클리(4) · 콜럼비아(6) · 스탠퍼드(7) · UCLA(8) · 프린스턴(10) · 서울대(45)

역사 History

하버드(1) · 스탠퍼드(4) · 예일(4) · UC 버클리(7) · 콜럼비아(8) · UCLA(9) · 프린스턴(10)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줄리아드(5) · 커티스(8)

고고학 Archaeology

하버드(4) · UC 버클리(5) · 스탠퍼드(6) · UCLA(9) · 서울대(47)

신학 · 종교학 Theology

노터데임(1) · 하버드(3) · 예일(7) · 듀크(9) · 보스턴 칼리지(10) · 서울대(45)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MIT(1) · 스탠퍼드(2) · UC 버클리(4) · 서울대(17)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MIT(1) · UC 버클리(3) · 스탠퍼드(8) · 서울대(33)

건축학 Architecture

MIT(2) · 하버드(6) · UC 버클리(9) · 서울대(28)

컴퓨터 사이언스 Computer Science

MIT(1) · 카네기 멜론(2) · 스탠퍼드(3) · UC 버클리(3) · 하버드(7) · 서울대(32)

전기/전자공학 Electric/Electronics

MIT(1) · 스탠퍼드(2) · UC 버클리(3) · 하버드(7) · 서울대(28)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MIT(1) · 스탠퍼드(2) · UC 버클리(6) · 서울대(26)

데이터 사이언스 Data Science

MIT(1) · 카네기 멜론(2) · UC 버클리(3) · 하버드(5) · 워싱턴(7) · 프린스턴(8) · 조지아텍(9)

수의학 Veterinary Science

UC 데이비스(2) · 코넬(3) · 콜로라도 스테이트(7) · 유엔(9) · 오하이오 스테



하버드 · MIT · 스탠퍼드 · 버클리 최상위 휩쓸어
학계 · 고용주 평판도와 논문인용빈도 기준 조사

의학 Medicine

하버드(1) · 스탠퍼드(3) · 존스 홉킨스(4) · UCLA(9) · UC 샌프란시스코(10) · 서울대(37)

치의학 Dentistry

미시건(1) · UC 샌프란시스코(6) · 서울대(33)

간호학 Nursing

유엔(1) · 존스 홉킨스(3) · 워싱턴(4) · 노스 캐롤라이나(9) · 예일(10) · 서울대(27)

약학 Pharmacology

하버드(1) · 존스 홉킨스(5) · 노스 캐롤라이나(7) · UC 샌프란시스코(9) · 서울대(27)

이트(10) · 서울대(49)

심리학 Psychology

하버드(1) · 스탠퍼드(4) · 예일(6) · 콜럼비아(7) · 미시건(8) · UCLA(9) · UC 버클리(10)

생물학 Biology

하버드(1) · MIT(2) · 스탠퍼드(3) · UC 버클리(6) · 서울대(27)

화학 Chemistry

하버드(1) · MIT(2) · 스탠퍼드(4) · UC 버클리(6) · 서울대(27)

지구해양학 Earth & Marine Science

하버드(2) · 칼텍(3) · MIT(4) · UC 버클리(7) · 스탠퍼드(8) · 콜럼비아(9) · 워싱턴(10)

환경과학 Environmental Science

하버드(1) · MIT(4) · UC 버클리(5) · 스탠퍼드(6) · 서울대(32)

지질학 Geology

하버드(2) · 칼텍(3) · UC버클리(4) · MIT(7) · 스탠퍼드(8) · 콜럼비아(9) · 워싱턴(10)

수학 Mathematics

MIT(1) · 스탠퍼드(3) · 하버드(5) · UC 버클리(6) · 프린스턴(7) · 뉴욕(9) · 서울대(46)

물리 · 천문학 Physics & Astronomy

MIT(1) · 하버드(2) · 스탠퍼드(4) · 칼텍(6) · UC 버클리(7) · 프린스턴(9) · 서울대(33)

인류학 Anthropology

하버드(2) · UC버클리(5) · 시카고(6) · UCLA(7) · 스탠퍼드(10)

경영학 Business Management

하버드(1) · 스탠퍼드(4) · MIT(5) · 유엔(6) · 서울대(41)

경제학 · 계량경제학 Economics

하버드(1) · MIT(2) · 스탠퍼드(3) · 시카고(4) · 프린스턴(5) · UC 버클리(6) · 예일(8) · 콜럼비아(10) · 서울대(38)

법학 Law and Legal Studies

하버드(1) · 예일(4) · 스탠퍼드(5) · 뉴욕(6) · 콜럼비아(8) · UC 버클리(9) · 시카고(10) · 서울대(45)

정치학 Political Science

하버드(1) · 스탠퍼드(5) · 프린스턴(7) · 예일(8) · UC 버클리(9) · 서울대(45)

사회정책 · 행정 Social Policy

하버드(1) · 스탠퍼드(5) · UC 버클리(7) · MIT(9) · 서울대(20)

통계학 Statistics

MIT(1) · 스탠퍼드(2) · 하버드(3) · UC 버클리(4) · 조지아텍(9) · 콜럼비아(10) · 서울대(42)



미주 동창회보 모바일로 보세요

최근 미주 동창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면서 휴대폰 등 모바일에서도 동창회보 기사를 비롯한 동창회 알림, 서비스 등의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www.snuaa.org)에 들어가셔서 상단 왼쪽의 사이트 목록 을 클릭하시면 NEWS가 나옵니다. 미주 동창회보를 누르시면 지난 호(pdf file)가 연도별, 월별로 일목정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부(chapters) 소식과 한국 동창회, 뮤직 비디오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SNUAA 스칼라 장학 프로그램에 ‘여풍’이 거세다... 67%나 차지해

지난 3월말 마감한 SNUAA 스칼라 장학 프로그램 신청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모자 가운데 72명(67%)이 여학생으로 나타나 1회 때 (63%)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한인인구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출신이 45명(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 12명(11%), 버지니아 8명(7%),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가 각각 7명(6%)으로 나타났다.

한홍택 장학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7명을 비롯해 UC 계열대학에선 버클리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카고에 소재

한 노스웨스턴도 7명이나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학은 작년엔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예일대 역시 지난해 1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지원자가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UCLA 5명, 유펜 4명, 콜럼비아와 스탠퍼드, 워싱턴대가 각각 3명씩 지원했다.

대학 1학년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41명(38%)로 가장 많았다. 2학년은 23명(21%), 3학년 30명(28%), 4학년 5명(5%) 등 순이었다.

전공도 1년 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노래작사에서부터 간호학, 고대 그리스와 로마역사, 심지어 화학과 음악을 복수전공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바이오와 컴퓨터 등 이공계 신청자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또다른 특징은 ‘지명장학금(named scholarship)’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명장학금은 기부자의 이름을 딴 스칼라십이다.

제1호 지명장학금 기부자는 한홍택 장학위원장이자 한홍택·백훈(미대 61) 동문 부부의 성을 따 ‘한백 장학금’으로 명명됐다. 이어 고광국(공대 54)·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도 1만달러를 쾌척해 지명장학금 대열에 합류했다. 삼익약기 미주법인도 1만달러의 장학금을 보내왔다. 삼익은 한국 총동창회장인 김종섭 동문 소유의 기업이다.

가슴 뭉클한 사연은 고 유시영(문리대 68) 동문의 이름을 딴 지명장학금이다. 고인의 아내 유은주 여사가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금 1만달러를 냈다.

한 위원장은 “훌륭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장학기금은 제한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University	Number	Percentage
Harvard	7	6%
Northwestern Univ		
UC Berkeley		
Yale	6	6%
UCLA	5	5%
U Penn	4	4%
Columbia	3	3%
Cornell		
Stanford		
U Washington		
74 Others	1 or 2	69%

명문대 출신 눈에 띄게 늘어나고 ‘지명 장학금’이 거의 절반이나 돼

시조집 펴낸 박종희(의대 69) 동문 뷰캐넌(Buchanan)상 수상 ‘쾌거’

영어시조 참고서 ‘SIJO: Korea’s Poetry Form’을 공동편집한 박종희(의대 69·세종문화회 사무총장) 동

문과 Elizabeth Jorgensen 고교 교사가 지난 3월 18일 뷰캐넌(Buchanan) 상을 공동 수상했다.

세종문화회가 제작하고 박영사에서 출판한 ‘시조’는 아시아 연구협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로부터 최우수 수업자료로 인정받아 2023년 뷰캐넌 상을 받았다. 아시아 연구협회는 전세계 6,500여 학자들이 가입한 비영리 단체다.



아시아 연구협회로부터 ‘뷰캐넌’ 상을 수상한 박종희(의대 69) 동문.

한편 세종문화회가 엄선한 시조가 연방항공우주국(NASA)이 추진중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주선에 실려 달에 전달된다.

시조는 지난 1월 출판한 시집 ‘폴라리스 트릴로지’에 11편이 실려 달에 보내진다.

시집은 디지털 형식으로 마이크로피시 디스크와 메모리카드에 저장돼 타임캡슐에 담긴 뒤 2023년 말 즈음 달로 향하는 스페이스 X에 실린다.

이 가운데 3편이 영어로 된 시조인데 박 동문의 영어시조 ‘Moon’이 포함돼 있다.

‘혈액암 투병’ 안성기, 백발에 환한 미소 유니세프 30년 봉사 따뜻한 평가받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 는 벽찬 감동을 느끼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국민배우’ 안성기(71)가 4·19 민주평화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안성기는 항암치료 중 빠진 머리가 제법 자랐고, 염색하지 않은 백발로 환한 미소를 보이며 “거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다.

안성기는 지난 19일(한국시각)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4·19 민주평화상은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제정한 상으로 민주주의 정착 및 사회정의, 평화 구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매년 시상해왔다.

안성기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국제구호기금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봉사 및 구호 활동을 이어왔다. 평소 인권보호 및 인류애를 실천해온 행보와 더불어 2011년부터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공익사업을 이끌어온 공로 등을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직후 무대에 올라 “저는 다섯 살부터 일생을 바친 직업이 영화배우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이 된 4·19 혁명정신을 기리며 제정된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로 저를 선정해 주신 데는 무엇보다 어려운 용단이 따랐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것은 아마도 영화배우라는 직업 활동보다 유니세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며 살아온 제 삶과 활동에 따뜻한 평가를 해주신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기는 “저는 오늘 칠순을 넘어서신 지금도 실천하고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제 인생관에 대해 처음으로 밝혀드릴 용기를 냈다”며 “한마디로 저는, 영화배우를 떠나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토종 남자라는 의식 속에 살아왔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수시로 자각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 안성기는 “저는 이념이나 체제를 불문하고 우리 인간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조직이나 계층 간의 불신, 갈등 구조가 생겨나고 증오와 대립, 싸움이 일어나는 대표적 요인이 힘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빈자, 양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왔다”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부유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봉사, 나눔과 기부 문화 등을 활성화하는 따뜻하고 예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신을 밝혔다.

안성기는 “제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시기에 건강 문제가 생겨 한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다시 거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제가 주신 이 큰 상은 새로운 꿈을 갖도록 기운을 안겨준 소중한 영예로운 선물이라 생각합니다”며 “남아있는 제 삶에서 열정을 다해 제 작은 힘이지만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신명을 바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했다. 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시상식을 빛내줬다. 후배 배우 박종훈과 둘째 아들 안필립이 함께했다.

안성기는 2019년 혈액암을 진단받아 이듬해 완치했지만 6개월 만에 재발 판정을 받았고, 투병 사실은 지난해 9월 알려졌다.



“너무 과분한 상을 받았다”며 울먹이는 배우 안성기.

박창욱(공대 56) 동문 추모식

지난 4월 28일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위치한 울드오처드 컨트리 클럽에서 추모모

임을 가졌다. 고인은 지난 1월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시카고 춘계골프대회 5월13일, 힐데일에서

시카고 동창회(회장 황치룡)가 오는 5월 13일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힐데일 골프코스(1625 Ardwick Dr., Hoffman Estate). 참가비는 그린피와 식사 포함 100 달러. 문의: chi.whang@gmail.com(회장 황치룡) callmeplz@gmail.com(총무 봉운식)

유홍림 총장 취임 첫 미국 방문 “미주 동문들은 모교의 든든한 자산이자 버팀목” 서울대 발전기금 · 이음장학생 위한 기부에 감사

유홍림 모교 총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오는 6월 9일 개막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동창회보와 이메일 인터뷰를 가진 유 총장은 “모교의 발전을 늘 성원해 주신 미주 동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특

히 유 총장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오늘의 부를 일궈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서울대는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발족시켜 국제사회에 되돌려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 편집자.

- 오는 6월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제3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총장님이 참석하신다는 소식에 이곳 동문들은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해주시는 동문들께 모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미주 동문분들은 서울대학교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을 미주 사회에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자 버팀목이 되어 오셨습니다.”

- 미주 동문들이 모교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요? 학술, 인적 부문과 관련해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신지요.

“학생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 우리 대학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 강의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서울대로 진학한다면 미주 동문 자녀 학생들이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채널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 내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 연관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은 외부인사는 물론 동문사회와의 연계, 협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프로그램 등에 미주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등을 지원하는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문화 예술 활동을 선도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자 설립된 문화예술원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에 대해 동문 참여가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것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탄탄한 경제·사회적 기반 등을 다진 동문들의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유익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 미주 동문들도 모교의 발전기금 모금



지난 2월 8일 제 28대 서울대 총장에 취임한 유홍림(정치학 80) 교수. “서울대를 국가와 인류미래에 공헌하는 학문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의과대 동물병원에 설치된 박민식·박금옥 진로실. UCLA 교수를 지낸 박 동문은 모교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생명공학연구동 건축과 반려동물병원 신축에 쓰인다.

미주 동문들의 선한 영향력 더 확산됐으면 스타트업 활성화 ... 미국진출 발판 기대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오늘의 부 일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대학교가 자유와 신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모금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모금캠페인은 학부대학과 RC(Residential College)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프로젝트 기금’, 서울대학교 공간 재구성(문화관-행정관-학생회관의 가로축과 도서관-본부잔디의 세로축을 잇는 핵심 공간)을 위한 ‘SNU Commons 기금’, 융복합 연구 및 글로벌 공헌 플랫폼 지원

을 위한 ‘목적형 기금’을 중점 모금 추진 예정입니다.”

- 작년 처음으로 모교의 이음 장학생 13명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동문 가정에서 머무르며 미국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이음 장학생들의 미국 방문일정이 잡혀있는지요.

“미주 동문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진행된 2022년 1기 이음 장학생들의 미주 방문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올해에도 2기 이음 장학생들이 여름 방학기간 미국 방문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미국 방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 속

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NU 이음장학생을 위한 기부와 도움을 주신 미주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 3월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스넥(SNAAC)’이 미주 동창회를 찾았습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라운드테이블’에 관심이 많으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많은데 그동안 접점이 없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미주 동창회와 협업 내지는 교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을 모아 구성된 창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창업지원단과 창업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전주 기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민간과 관악S밸리 조성 및 시흥캠퍼스 등 멀티캠퍼스 내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창업환경 조성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업경험이 있는 동문들 간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국내·외 냉각된 경제환경은 창업기업에 투자 감소, 시장의 축소와 같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외적 경제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대학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투자 연계 등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안정화 단계에 조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이미 창업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문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동문 창업기업 및 VC, 교원·학생 창업기업을 초청하여 기술협력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 동문 창업 네트워크(SAEN: SNU Alumni Entrepreneurship Network)’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서울대 창업 비전 실현을 위한 미주 동창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요청드립니다.

그간 우리 대학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은 CES, MEDICA, BIO-USA와 같은

(5면에 계속)



〔미네소타 공항에 도착한 간호 연수생들〕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 온 서울대 간호대 연수생들.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에 온 이들은 선진간호기술을 습득해 한국의 의료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 2월 KIC DC (한국투자공사 워싱턴DC 지부)와 우리 대학 창업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타 지역으로 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교내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스타트업 라운드테이블' 및 보유 네트워크는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연계, 기술 고도화 등을 원하는 우리 대학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주 동창회와 적극 협력을 통해 "서울대의 우수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서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악 S밸리를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스타트업 밸리로 성장 시켜 나가겠다"는 서울대의 창업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지난해 9월 사회봉사상에 미주 동문(김필주 박사)이 수상한 바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교가 진행하는 시상 프로그램에 미주 동창회에도 사전 통보, 후보 추천을 의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대학은 국가 및 사회기여 사회봉사 등을 통해 동문과 후진들의 본보기가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교직원, 동문, 서울대 구성원 등을 발굴하고 송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 등을 포상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은 미주 동문들의 헌신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는 뜻깊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12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에 미주 동문이신 김필주 박사가, 제15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에 박민식 전 UCLA 교수·박금옥 동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필주 박사는 국제사회의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NGO 단체인 '지구촌 농업협력 및 식량 나누기 운동협회'를 창립 하고, 회장으로 재직하며 개도국에서 다양한 식량

구호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박민식 전 UCLA 교수·박금옥 동문은 2008년부터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셨고, 기부금이 서울대 생명공학연구동 및 반려동물병원 건립에도 쓰이면서 미국수의사회 수의학 교육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후보 추천 공고 및 접수 일정은 발



에티오피아 어린이의 심장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의료진. 이들은 현지 아프리카 의료인들에게 선진기술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공로상 및 사회봉사상은 5 월초~6월 초,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경우 7월 초~8월 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의사에 감사드리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고문 등을 전달 예정으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주 동문들의 선한 영향력이 모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상자 발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국 대학에도 서울대와 관련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서울대의 발전은 물론 '한강의 기적'은 이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재 조명된다면 뜻깊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공과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별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들을 시행해왔습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의 경우 인기복 교수 주도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대한 보답으로 2019년 4월부터 '에너지자원 국제인력양성 장학금'을 조성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들의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네소타대학교 총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였고, 양 대학이 향후

활발한 연구 협력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과거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받은 혜택을 잊지 않고, 그 뜻을 되새기며 국제사회에 되돌려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운영, 개도국 대상 국제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주 동문사회와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갈 계획입니다.

미네소타대학과 교류 프로그램은 미네소타 대학 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간의 정기적 온라인 모임으로 학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프로그램 입니다.

SNU President Fellowship Program은 박사학위가 없는 개도국 교원들을 박사지원을 통해 학위를 받는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졸업 후 귀국하여 해당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NU

in World Program은 ODA 대상 국가들을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3주간 수업을 통해 개도국이 처한 문제들에 대해 느끼고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2023년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이종욱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서울대학교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의학

교육 연수 프로그램(미네소타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 선진 의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 의학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모두 평등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류 협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는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는 가치관으로 국제사회에 헌신한故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1976년 졸업)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자 2012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열악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의료 불평등 해소에 앞장선故이종욱 사무총장의 발자취를 따라, 의료취약 국가의 역량을 향상하고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글로벌의학 분야의 교육과 동시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취약국가를 위한 국제공헌 활동의 기획부터 수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단 '샤눔형(SNU+나눔) 글로벌 해외봉사' 시행중으로, 해외 개도국 및 국내 거주하는 취약한 이주민 지역사회, 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 파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중(농생대 74)**

'서울대생은 어떻게 살까' 30년 종단연구 학생 500명 조사



하버드대 재학생 70년 생애 연구 벤치마킹

모교가 500여 명의 재학생을 30년 이상 관찰하는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에 착수했다. 서울대 학생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면서 입학 후 학교생활은 어떤지, 졸업 후엔 어떤 삶을 사는지 장기간 추적연구를 진행한다. 모교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성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재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연구의 모티브가 된 것은 하버드대의 '2학년생 268명 생애연구'다. 하버드대는 1938년 당시 2학년에 재학중이던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시작해 70년간 종단 연구를 펼쳤다. 2009년 마무리된 연구결과를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펴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모교는 대학 혁신센터 주도로 지난해부터 종단 연구를 준비해 왔다. 지난 10월엔 예비조사도 진행했다. 앞으로 매년 신입생 중 학생 패널을 모집해 2년 주기로 삶을 추적하게 된다. 매년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5~10년 내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그간 모교는 학내 기관의 설문조사, 상담기관의 상담내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산발적으로 파악해왔다. 입학 이후 학업성취도를 조사해 입시전형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지만 본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학생들을 장기간 일관되게 관찰한 적은 없었다.

본격적으로 종단 연구를 시작하면 입학처와 중앙도서관 등 학내 기관에서 데이터를 공유받아 입학 전형과 출신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읽은 책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백두산이 2025년에 대폭발 한다?”

100년 주기설에 근거 ... 21세기에 아직 없어 ‘불안’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자연재해 중에서도 인류의 역사, 지구의 생태계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지질학자, 기상학자들은 화산 분화, 곧 화산폭발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수백년 동안 자연재해 중 지진이나 화산폭발에 서만큼은 안전하다고 믿는다. 한반도는 지각이 불안정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살짝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인 유라시아판에 속

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가설이 하나 있다. 바로 백두산의 분화다. 백두산은 1천년 전 대폭발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만배에 달했다고 한다. 과연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이현우 교수가 서울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샤로 말하다’에 출연, 긴급 진단을 내렸다. 유튜브 강연 내용을 간추려 신는다. - 편집자.



이현우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백두산은 반드시 터진다”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 “2025년 대폭발, 3년 남았다”. 요즘 이런 워딩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 알 수 없다. 하지만 “0%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백두산은 지하에 꽤 커다란 규모의 마그마 방이 여러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화산이란 것도 분명하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화산이 터지는 것을 화산분화(volcanic eruption)라고 부른다. 화산 폭발은 두가지 형태가 있다. 폼페이를 멸망시켰던 베수비우스 화산과 같은 폭발성 분화(explosive eruption)와 폭발하지는 않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분출성 분화(effusive eruption)가 있다.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의 근거는 서기 946년의 ‘밀레니엄 대분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화로 꼽힌다. 1000년 전 폭발성 분화 이후 더 이상 폭발성 분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후 매 세기 일반적인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분화는 1903년 기록됐다. 21세기에는 아직 뚜렷한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현상을 인간의 시간대, 곧 타임프레임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구도 인간처럼 하나의 시스템인데 화산이란 것도 배출을 하는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언제 대변을 배출할지 정확히 분초를 알기는 불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산 분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질학적 데이터를 통해 화산활동이나 분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습득, 과거보다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마그마가 지표로 상승하면서 땅을 억지로 뚫고 나오는데 이때 지진이 발생한다. 그와 동시에 화산 가스가 배출하게 되며 그 위에 지하수나 화산 호수가 있

게 되면 황, 이산화탄소의 탄소공급으로 인해 굉장히 pH가 낮은 산성용액으로 바뀌게 된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간헐천(geyser)의 형태로 배출이 된다.

화산체는 팽창하게 된다. 최소 수mm, 수cm의 변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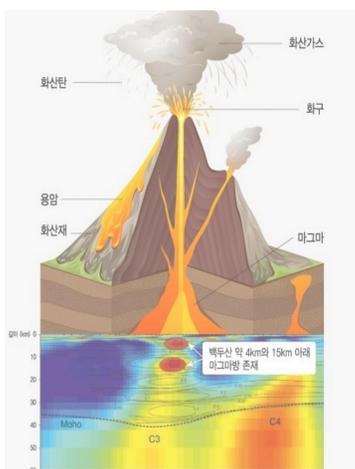
가스(방귀)를 배출하면 매우 독한 냄새가 난다. 그러나 속이 비어있을 때는 냄새가 덜 난다. 지금 백두산은 후자와 같은 경우다.

만약 수십년 전과 같은 분화의심시기(volcanic unrest)가 도래한다면 그때가

천지가 옥빛이 되면 전조증상 VEI 지수 3~4만 되도 피해 커



백두산의 천지 호수. 옥빛으로 변하면 분화의 전조현상이다. 지하의 마그마로부터 유입되는 황 성분 때문이다.



▲ 화산폭발로 용암이 분출되는 장면. 화산은 VEI가 3~4만 되더라도 주변이 거의 초토화된다.

◀ 백두산 폭발시 예상되는 피해. 폭발성 분화가 아니더라도 항공대란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벌어진다.

종합적으로 감지하게 되면 전조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실제로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분화에 가장 가까운 지진과 화산체 변이(volcanic inflations), 화산 가스 발생이 있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다. 시기로 분화를 할 때가 됐고 전조현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다행인지 분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백두산은 다시 백그라운드 레벨로 돌아갔다.

예를 들어 천지호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은데 하부에서 마그마로부터 유입되는 황 성분으로 인해 옥빛 또는 민트 빛깔의 물빛이 되겠다.

마그마들이 계속 요동치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굉장히 유독한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온다. 마치 우리 배가 가득 찼을 때

현재보다는 분화에 가까운 시점이다. 그럼에도 전조현상이 전혀 없었는데 분화가 일어난 사례가 있다.

2014년 9월 발생한 일본 온다케 화산의 경우 갑자기 분화해서 50여 명의 단풍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었다.

1980년대 아프리카 카메룬의 레이크 니오스는 조용한 호수였는데 하루밤 사이에 화산가스가 분출,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지표면에 깔려 1,7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전조증상이 전혀 없는 화산의 분화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

현재 북한 쪽이 저희와 협력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백두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백두산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밀레니엄 대폭발이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 이를 토대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화산폭발지수(volcanic explosivity index: VEI)가 있다. 화산의 과거 폭발규모를 상대적으로 0~8 혹은 9까지 임의로 나눈 것이다.

한 구간까지의 화산폭발의 세기는 10배씩 차이가 난다. 3~4만 되도 굉장히 강한 폭발이 일어난다. 2022년 남태평양의 통가 해저 화산폭발의 위력은 VEI 5 규모인데도 역대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백두산의 경우 밀레니엄 대폭발의 VEI는 7이다. 통가의 최소 100배 이상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당시 일본 동북부에 최소 5cm의 화산재층이 쌓였으며 또 황 성분이 제트기류를 타고 그린란드까지 확산돼 빙하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황의 농도가 관찰됐다. 그 이듬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현상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돼 있다.

백두산은 폭발성 분화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진이 일어나도 천지의 물로 인해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

백두산 내부에서 공급되는 화산 물질과 천지의 물이 섞이면 화산이류, 곧 라하르(lahar)가 발생한다. 라하르는 밀도가 높은 유체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을 초토화시킨다. 하천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 국경이 재설정되는데 북한과 중국의 분구가 예상된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가지만 남한쪽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화산의 분출물은 수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수직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측면분화를 생각할 수 있다. 1980년대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이 한 예다. 세인트 헬렌스는 물질이 측면으로 강한 이동을 해 피해가 컸다. 백두산이 측면분화가 되는 경우 북동풍이 불면서 날씨가 더해지면 남한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폭발성 분화가 아니더라도 VEI 3~4만 되더라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분화는 이와 비슷한 규모였는데 유럽일대 항공이 마비가 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일본의 아소산과 후지산도 주목해야 한다. 아소산은 현재 활화산 상태로 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 살고 있다면 백두산 보다 오히려 아소산이 훨씬 더 가깝다.

화산폭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전조증상이 없어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매뉴얼을 작성해 두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32차 평의원 회의

6월 9일(금) 라스베가스에서 개막 ... 일반 동문들에게도 개방
휴가철 가족여행 최적지, 여름 성수기여서 예약 서둘러야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오는 6월 9일(금) 세계적인 관광도시 라스베가스에서 개막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휴가시즌을 맞아 일반 동문들에게도 오픈한다. 평의원 뿐 아니라 동문이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서울대인의 한마당 축제로 치러진다. 벌써부터 동문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볼거리, 먹거리, 탈거리, 살거리 가득한 라스베가스에서 동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또 가족과도 오붓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란다.

호텔예약

Westgate Las Vegas Resorts

<https://book.passkey.com/go/SSNU3R>

1-888-808-7410(Group name: SSNU3R)

회비 평의원 \$200(식사 포함), 일반동문 \$150(식사 포함)



웨스트게이트 호텔 Westgate Las Vegas Resorts

한때 '라스베가스 힐튼'으로 알려진 곳으로 1990년까지는 세계최대의 호텔이었다.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매일 두 차례 공연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호텔 로비에 프레슬리 동상이 세워져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노레일을 타면 라스베가스 스트립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어 지리적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세계최대 전자쇼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가 지근거리에 있어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호텔이다.
호텔 바로 건너편에는 PGA급 골프코스가 한 눈에 펼쳐진다.

'The Las Vegas Country Club'이다. 골프장 이름에 정관사 'The'가 붙는 곳은 미국서도 흔치 않다. 서울대 동문 소유여서 평의원 회의가 끝나는 11일(일)에는 '더 라스베가스'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라스베가스 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는 3.5마일이다. 우버를 이용하면 10~15 달러다. 일반택시는 두배 가량 비싸다. 호텔에서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예약은 <https://Lasxpress.com/reservations>.
호텔 체크인은 오후 3시, 체크아웃은 오전 11시. 모든 객실은 금연이다. 주차는 무료.



LA-라스베가스 미니버스

LA한인타운에서 주 7일 미니버스가 운행된다.
출발장소 가든 스위트 호텔(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월요일 7:45 a.m. & 1:30 p.m.
화요일 1:30 p.m.
수요일 & 목요일 7:45 a.m. & 1:30 p.m.
금요일 7:45 a.m. & 12:30 p.m.
토요일 1:30 p.m.
일요일 11:00 a.m. & 2:30 p.m.

다음의 세곳에서도 미니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
가든그로브: 8911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애너하임: 2035 E. Katella Ave., Anaheim
다이아몬드바: 21080 Golden Spring Dr., Diamond Bar.

요금 \$20~\$60(편도기준)
예약 온라인 - info@Luxxpress.com/www.luxxpress.com
전화 - (888) 800-8003

*행사 4주 전 예약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스베가스 도착지를 반드시 Gold Coast Hotel로 명시해야 한다.
이곳에서 행사장인 웨스트게이트 호텔까지는 3.7 마일이다.
South Point Hotel은 11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

LA 출발 2박3일 관광안내
6월 9일(금) LA 출발, 6월 11일(일) LA 도착.
문의: 아주관광(213-388-4000)

Las Vegas - LA
탑승장소
Gold Coast Hotel(4000 W. Flamingo Rd., Las Vegas)

월, 화, 수, 목요일 7:45 a.m. & 2:30 p.m.
금요일 7:00 a.m.
토요일 7:45 a.m.
일요일 9:00 a.m. & 11:00 a.m.



평의원 회의 일정

6월 9일(금)

등록 및 리셉션

12:00 p.m. - 1:30 p.m.

학술세미나

1:30 p.m.-4:00 p.m.

- 주준희(문리대 72)
재외 동포청과 재미한인
- 안혜정(생과대 77)
FDA의 역할
- 김동희(공대 66)
Chips War USA vs China

SNUAA Scholar 장학생

발표 및 디너

6:00 p.m.-9:30 p.m.

클래식 기타 공연

- 심재호(공대 75)
- 양수진(간호대 80)
- 제니퍼 김(USC)

6월 10일(토)

평의원 회의

9:00 a.m. - 12:00 p.m.

점심 식사 및 휴식

12:00 p.m. - 2:00 p.m.

평의원 회의

2:00 p.m. - 4:00 p.m.

18대 회장선출

디너

6:00 p.m. - 9:00 p.m.
서울대 총장 및 총동창회장

축하송

- 백정현(음대 66)

피아노

- 제갈소망(음대 91)

평의원 회의 폐막

6월 11일(일)

골프

1:00 p.m.

- The Las Vegas Country Club
- 골프비: 도네이션(\$100, 카트 포함)
- 골프클럽 대여:
mickeyc@lasvegasc.com
- 예약: 백옥자(818-395-1967)

문의 |

818-321-2214(이호진 총무국장)
818-395-1967(백옥자 총무국장)

18대 회장 출마의 변
(2025~2027)

“지속가능한 동창회 만들기에 최선 다할 터”



황효숙
사대 65

제 18대 미주 동창회 회장 후보로 나온 미네소타의 황효숙입니다. 미네소타는 1950~60년대 'Minnesota Project' 로 서울 대와는 역사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32년간 전임 회장님들의 뛰어난 리더십과 동문 여러분들의 협조로 동창회는 이제 안정적인 체제를 갖췄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가 최근들어 '지속가능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선배 동문님들의 낮은 관심과 젊은 동문님들의 적은 참여입니다. 동창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여서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지난 30여년간 멋지게 지어놓은 큰 집에 거주할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며 일말의 서글픔을 느낍니다. '지속가능'에 대한 과제는 제게는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규모는 작지만 2017년 제가 미네소타 지부 회장직을 맡았을 때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낮았습니다. 연회장의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내년에는 한 테이블이 더 비겠구나' 하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임원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동문 개개인에 연락하고 참석한 분들에게 '대접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 결과 1년 후에는 3배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젊은 동문들에게는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동문님들은 그 기쁨을 지갑을 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난 2021년 LA 평의원 회의에서 보고해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지부는 지금 젊은 동문들의 참여율이 선배 동문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분포도 20대에서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미주 동창회 차원에서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스마트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젊은 동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부의 활성화와 동창회보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믿습니다. 회보는 동문들간의 소통의 장이며 전국 27개 지부의 활동과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입니다. 미주 동창회는 27개 지부의 합

입니다. 각 지부가 건강해야하며 어느 한 곳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회장님들이 쌓아 놓으신 주요 프로젝트들을 계승하며 이와 동시에 Century Foundation과 SNUAA Scholar 장학 프로그램의 기금 모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모교가 벌이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모교 총동창회와도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습니다.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를 비롯해 음악회, 전시회 등을 커뮤니티에도 개방해 서울대 동문들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community outreach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동창회의 미션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인'이라는 큰 자부심과 씩씩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주 동창회를 이끄는 중책을 도전의식을 갖고 맡아보려 합니다. 모든 동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변화하는 동창회가 되게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를 위하여! 서울대를 위하여!

황효숙 동문은

CFO, Nanodyne Measurement Systems(1990 to present)
미네소타 한인회장(2020~21)
서울대 미네소타 지부 회장(2017~18)

“황효숙 동문을 추천합니다”



송창원
문리대 53
미네소타대
명예교수

창의적 리더십에 감탄

저는 30여년 전 미네소타 지부 동창회 창립에 관여했고 2대 지부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황효숙 동문의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또 함께 일하였기에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열성을 다해 완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황 동문은 미네소타에서 가장 충실히, 가장 창의적으로, 또 가장 열성적으로 일한 회장이었습니다. 황 동문이 회장을 맡으면서 동문회 모임 참석자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저는 그의 창의적인 리더십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인사회를 위해서도 헌신적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한인회장을 역임, 동포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폭동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김영남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Chamber Music Society of Minnesota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후원금 모금에 앞장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황 동문은 기업가로도 성공하신 분입니다.



신학철
공대 75

LG화학 부회장

희생 두려워하지 않아

황효숙 동문은 미네소타 동창회장은 물론 미네소타 한인회장으로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앞장 서고 본인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른바 'servant leadership'의 표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폭동으로 인해 한인 비즈니스가 불타는 등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황 동문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한인 업소의 빠른 복구와 재출발을 위한 기금모금 등 여러 활동들을 진두지휘하는 공로는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황 동문의 이같은 리더십이 미주

동창회의 미래와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은 황 동문이 지닌 뛰어난 덕목입니다. 대화와 설득, 그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단합을 이끌어내는 황 동문의 리더십이야말로 우리 미주 동창회를 이끌 최적임자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김권식
공대 61
EVS 회장

좋은 변화 가져올 지도자

저는 30년 넘게 황 동문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황 동문은 '시들어 가는' 미네소타 동창회를 젊은 세대와 연배 높으신 선배 동문님들과 함께 모여 즐기는 단체로 바꿔놓았습니다. 황 동문 덕분에 생명력이 넘치는 동창회가 되었습니다.

황 동문은 미주 동창회에 커다란, 좋은 변화를 가져올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미주 동창회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 동문회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한정희(미대 81) 편집위원이 만난 사람

유미 호건 ... 아시아계 최초의 백악관 안주인?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한인 정체성 잃지 않아
30년 지켜보니 소박함과 지혜로움이 매력 포인트

내가 만난 사람, 유미 호건(한국명 박유미) 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남편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이다. 친근하고 소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한다.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서울대 동창회보에 쓸 줄은 몰랐다. 편집고문께서 좋은 스토리가 될 것 같다며 격려해줘 쓰게 됐다. “누가 아느냐. 유미 여사가 백악관 안주인이 될지...” 하면서다.

유미 여사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몇 개 붙는다. 메릴랜드 역사상 첫 아시아계 퍼스트 레이디, 내년엔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뽑히면 역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배우자가 된다. 백악관에 입성하면 그야말로 ‘대박’일 터.

유미 여사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30여년 한결같이 섬기고 계신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교회였지만 한결같은 신앙으로 줄곧 한 교회를 출석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회에서 만나 매주 점심 친교를 하고 구역예배로 모이면서 그분의 인간적인 매력을 알게 됐다. 너무나 서민적이고 그래서 더 친근하고 또 친절하고 다정하다. 가식이 없다는 거다. 남에게 진솔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하다.

우리 교회에선 그를 ‘유미 집사’라 부른다. 어린아이에서부터 90세 노인들까지 모두 그렇게 부른다. 많은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젠 흥허물없이 지낸다. 가족이나 다름없다.

유미 여사의 고향은 전남 나주다. 양계장집 8남매 중 막내다. 그가 미국에 오게 된 것은 미술 공부를 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애 딸린 홀아비에 처녀시집을 왔다. 미국에 도착해 보니 텍사스 오스틴의 외딴 마을, 고향 나주보다 더 낙후된 곳이었다. 처음엔 딸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 둘이었다. 유미 여사도 딸을 하나 낳아 줄지에 딸 셋 엄마가 됐다.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 에어컨이 없어 여름이 되면 집이 찜통같이 달아올랐다. 앞이 캄캄했다. 어느 날 굳게 입을 먹고는 아는 분이 있는 LA로 ‘탈출’을 감행했다.

전처 소생 딸 둘을 포함해 아이 셋을 키우느라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어떤 때는 런치 머니 줄 2달러도 없어 꾸러 다닌 적도 있었다. 딸 셋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미래였다. 큰 딸 김은 계모인 유미 여사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다.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어린 두 동생들을 돌봤다.

한 지인의 도움으로 가게를 운영할 기회를 잡게 됐다. 생활이 안정되고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배움에 대한 열정

이 꿈틀댔다. 용기를 내 메릴랜드예술대(MICA)에 입학, 미술의 세계에 눈을 떴다. 졸업 후 그룹전을 하게 됐는데 이 갤러리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래리 호건이다. 자신을 부동산 브로커라고 소개하며 우연히 이 근처 건

호건의 부친은 알고 보니 연방하원의원을 세차례나 지낸 거물급이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호건이 어느 날 뜬금없이 주지사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다. 메릴랜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 곧 민주당 텃밭이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호건이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그것도 취임 첫 해에. 하루 24시간을 거의 남편 병간호에 매달렸다. “남편을 잃을까 겁이 났어요.” 유미 여사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 뿐.

6개월 후 그가 기적처럼 회복했다. 이후 5년간 재발하지 않아 완치판정을 받았다. ‘호건 스트롱(Hogan Strong)’이란 캠페인까지 일었다. 그의 완치를 바라는 응원이 사회현상이 된 것.

2018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그해 선거는 공화당의 전국적 대패였다. 호건은 그러나 2위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냈다. 한때 직무 지지율이 80%를 웃돌기도 했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로 뽑히기도 했다. 전국 구스타 정치인이 된 것이다.

유미 여사는 남편의 ‘빈 곳’을 조용히 채워 나갔다. 이민자, 싱글맘 등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었다. 유미 여사의 진가는 코로나 19 때 발휘됐다. 한국에서 50만회 검사 분량의 진단키트를 공수해와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주지사 관저는 방이 54개나 된다. 요리사 3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빨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도 따로 있다. 극진한 대접이 익숙지 않아 손수 팔을 걷어 부치는 일이 많다.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 주방에 와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돕는 건 유미 여사가 처음이다. 관저엔 김치 냉장고도 들여놨다.

한식을 소개하며 널리 알리는 일도 했다. 행사 때에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도 즐겨 입는다. 메릴랜드 주 퍼스트 레이디로서 한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도 자긍심을 갖는다.

호건 패밀리는 미국의 전형적인 인구구성과 비슷하다.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둘째 딸과 사위는 공화당원, 큰 딸 부부는 민주당원이다. 서로에 정치색을 강요하지 않는게 불문율이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정... 어쩌면 미국의 건국이념과도 닮은꼴이다. ‘E pluribus unum’, 곧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된다(From many, one)는 뜻이다.

유미여사는 한국의 여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지혜롭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내조하며 결국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유미 여사가 래리 호건을 주지사로 만들었다고도 한다.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늘 얘기한다. 유미 여사가 백악관 안주인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교회에선 ‘유미 집사님’으로 통해
전처 소생 포함 ‘딸 셋’ 홀로 키워



▲ 유미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지사 취임 선서하는 래리 호건. 딸들도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 주지사 취임 축하 갈라 파티에 참석하는 호건 부부.

▼ 6·25 참전용사들을 관저로 초청해 격려하는 유미 호건



물을 보러 왔다가 갤러리에 들렀다고 했다. 그때 호건은 44세, 유미는 41세였다. 첫 데이트 때 망설임없이 자신을 ‘장성한 딸 셋을 둔 엄마’라고 말해줬다. 호건은 그런데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혼자 아이 셋을 키워낸 것에 크게 감동했다. 4년 열에 끝에 2004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전통 폐백도 했다.

“복덕방을 한다고 해서 밥 굶기진 않겠지 싶었어요.” 언젠가 구역예배 때 들려준 말이다.

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리라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부부는 발로 뛰며 지지를 호소했다. 바닥이었던 지지율이 꿈틀거렸다. 선거가 박빙일 경우 대개는 ‘스윙보트(swing vote)’가 당락을 결정짓게 마련. 유권자 중 거의 6%를 차지하는 아시아계가 호건에 몰표를 던지다시피 해 기적을 연출해냈다. 거의 100년만에 처음인 공화당 주지사, 최초의 아시아계 퍼스트 레이디가 탄생한 배경이다.

한인 유일의 LPGA · PGA 마셜(marshal) “18번 홀에 배치돼 종종 대역전 드라마 지켜봐요”



‘Quiet’ 손팻말을 든 이명선 마셜. 남가주에 선 한인 유일의 PGA · LPGA 대회 진행요원이다.

이명선 상대 58

“최종 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3-퍼트로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명선(상대 58) 동문은 지난해 LPGA의 팔로스버디스 챔피언십에서 박인비 선수의 18번 홀 퍼팅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한다. 1년이 돼가는데도 박 선수의 퍼팅 하나 하나가 아주 촘촘하게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한 표정이다.

팔로스버디스 챔피언십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한 대회다. 4라운드 18번 홀에서 무너진 박인비는 결국 최종합계 4언더파 공동 16위로 주저 앉고 말았다. LPGA 겨우 1승에 불과한 미국의 마리나 알렉스가 10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명선 동문은 어떻게 박인비의 경기를 지적에서 지켜봤을까.

LPGA 경기진행요원, 이른바 ‘마셜(Marshal)’이다. ‘Be Quiet’ 손팻말을 들고 갤러리를 통제하며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마셜의 임무다.

이 동문은 남가주에선 유일한 한인 프로골프대회 마셜이다. 그래서 가끔 TV의 중계 카메라에 모습이 잡혀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모든 마셜의 꿈은 18번 홀에 배치돼 경기진행을 돕는 것. 막판 버디 퍼트로 역전 드라마가 종종 펼쳐지는 현상이

기 때문이다.

“대회 주최측의 배려로 18번 홀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문은 밝게 웃었다. “마셜을 할 때면 ‘나이 늙’이 왜 좋은가를 실감하게 되요.”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나이를 묻지는 않지만 내가 최고령 마셜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18번 홀은 대개 이 동문의 몫으로 남겨둔다. 나이 차별은커녕 오히려 특혜를 받는다.

LPGA 참가 선수 중 태극남자들은 거의 15%나 차지할만큼 이제 ‘코리아’가 빠진 대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동문은 리디아 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고 했다. 뉴질랜드 국적의 고 선수는 세계랭킹 1위. LPGA에서는 가히 독보적인 존재다. 그런데도 사진촬영에 흔쾌히 응하는 등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말 현대가 재벌 3세와 부부의 연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셜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대회를 치르는데 최소 100여 명의 마셜이 필요하다.

마셜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그린이다. 스코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어서 에티켓이 중요하고 또 잘 지켜야 한다. “골프의 매력은 200m드라이브 샷이나 50cm 퍼트나 똑같은 1타의 가치를 갖는데 있어요.”

그린에서는 갤러리들에게 팻말을 살살 흔들어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이 동문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대회 갤러리를 적극 권유한다. 골프가 에티켓을 중요시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언제나 절제된 태도가 필요하고 예의를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것이 골프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매너가 좋지 않은 갤러리는 즉시 퇴장시키는 골프장도 있어요.”

LPGA 뿐만이 아니다. 팜스프링스의 PGA웨스트의 스테디엄 코스에서도

팻말을 든다. 김주형(탐 김) 선수는 그가 제 2의 타이거 우즈로 꼽는 PGA의 샷별. 약관 20세의 나이에 벌써 우승컵을 2개나 커리어에 담았다. 실력과 흥행을 담보한 걸출한 스타가 탄생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PGA 웨스트에선 웬지 기를 느껴요. 마치 애리조나의 세도나에 온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전세계에서 볼텍스 기운이 가장 세다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박인비의 3-퍼트에 가슴이 미어지기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는 겸손한 선수 골프를 경영에 접목, 성공한 기업인으로



미국 여자골프의 간판선수 렉시 톰슨과 함께. 화려한 외모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로 늘 갤러리들의 관심을 받는다.



리디아 고는 세계랭킹 1위의 골퍼. 그런데도 늘 겸손하고 사진 촬영에 기꺼이 응한다.

도 그걸 느껴요. 인근 돌산에는 빅혼(big horn) 양떼가 수백마리 무리져 살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좋아 가끔 이곳에서 몇주 묵혀 살아요. 자연과 함께요.”

골프가 왜 좋으냐는 질문에 이 동문은 서슴지 않고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 둘째 정신집중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클럽을 손에 쥐면 마음에 잡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동문이야말로 골프를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골프에서 익힌 집중력으로 하워드 휴즈가 창업한 ‘Houston Fearless 76’를 인수, 굴지의 기업체로 키워냈다. 특수 마이크로 필름과 영화필름을 고속으로 현상하는 기업이었으나 경영부실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자동차 충돌 테스트 필름현상 시스템, 지문검색 마이크로 필름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해 1987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인상(Entrepreneur of the Year)’을 받았다. 그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상이다.

지금은 경영2선으로 물러나 큰아들 제임스에게 회사를 맡겼다. 장남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스탠퍼드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그는 해군예비군 대령으로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베테랑이다. 이 동문의 ‘골프 유전자’는 작은 아들 에드윈이 물려받았다. 스탠퍼드대 골프 대표선수로 한때 대학스포츠 유망주로 꼽혔다.

이 동문은 골프의 ‘신사도’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듯 하다. “지난 1976년 회사를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소송을 당한 적도, 소송을 해 본 적도 없어요. 골프로 정신수양이 된 덕분이겠지요.”

골프는 한마디로 정직한 운동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기업도 정직하게 운영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오죽 투명한 경영을 했으면 IRS 택스 감사관이 ‘당신네 회사는 앞으로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거의 0%다’라고 했겠어요.”

이 동문은 몇해 전 한 번 욕심을 내봤다. 팔로스버디스 친선 토너먼트에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했다. 3등은 했지만 양쪽 어깨에 무리가 수술을 해야 했다.

“힘들해야 했는데... 지금도 1주일에 대여섯번은 필드에 나가요. 정신수양을 하기 위해서지요. 내 인생에 불만은 없습니다. 골프 덕분에 ‘원더풀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이 동문은 엄지척을 해 보였다.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한미동맹재단 · 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LA 디즈니홀 평화 음악회 ‘한국이 사랑하는’ 금난새(음대 66) 동문 성남시향 지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가 LA 한인사회의 범커뮤니티 행사로 치러진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가 공동 주최 · 주관하고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한인커뮤니티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 오는 6월 28일(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회에는 6·25 참전 용사들을 비롯해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 평화봉사단 단원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회 홍보차 LA를 방문한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LA 커뮤니티 지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이곳 동포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도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특별후원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LA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OC한인회, 한상대회 조직위원회, 미 육군협회 LA지부 등도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기업협찬도 이어지고 있다. 한남체인(회장 하기환)과 뱅크 오브 호프(행장 케빈 김), 경동 나비엔 등도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공동성명을 발표, “1950~1953년 한국전쟁 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주도하는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모범이 되는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카투사에서 근무한 한미 장병 30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설립됐다.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전우회를 지원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같은 해 창설됐다. 현 회장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커티스 스캐퍼로티 예비역 대장이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도 동창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세계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식전 행사

한국군(헌병예비역)은 태극기, 미 제 40사단 의장대는 성조기를 각각 들고 입장한다.

이어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과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인 유명환(법대 62)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각각 축사를 한다.

‘한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한국의 성남시가 시립교향악단을 미국에 파견, 디즈니홀에서 축하공연을 펼친다.

지휘는 성남시향 예술 총감독 겸 상임지휘자인 금난새(음대 66) 동문. 오케스트라는 성남시향 단원 40명과 LA현지 연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기반이 됐다.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각각 조인됐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한미동맹은 이날부로 성사된 것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잠시 철수했

었던 1945년 6월 부터 1년간 제외)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 기여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으로 전쟁억제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안보의 일부분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으로선 생존을 담보하는 생명줄이자 압축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금난새 동문 지휘로 열리는 평화음악회. 오페라 ‘카르멘’을 비롯해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등 미국 작곡가의 작품이 연주된다.



지휘자 금난새



찰리 ‘박’ 올브라이트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 동문

6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디즈니홀 ‘이 시대 가장 매혹적인 카르멘’ 백재은 동문 출연 ‘하버드의 천재 피아니스트’ 찰리 박 올브라이트

주자 30명 등 모두 70명으로 편성되는 역대급 규모다.

‘한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동문은 무대에서 위트와 유머를 섞어 곡을 해석, 관객들의 이해를 도우며 재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금 동문이 무대에 서면 클래식계에선 보기 드물게 티켓이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지난 4월 초 2030 세계박람회(월드 엑스포) 부산유치 ‘K문화의 밤’에서 금 동문은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의 OST인 ‘Moon River’ 등을 지휘, 앙코르가 쏟아졌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한국 문화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찬

사를 받았다.

이번 디즈니홀 공연에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곡 중의 하나인 비제의 ‘카르멘’을 연주한다.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음대 94)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너 허영훈이 무대에 선다.

2부 순서는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로 꾸며진다. 거슈윈은 미국의 작곡가로 현대음악사에서 대중성과 예술성 등 모든 면에서 성공한 음악가다.

‘랩소디 인 블루’는 가장 미국적인 음악을 담아낸 그의 대표작이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으로 심포니 재즈의 걸작으로 꼽힌다.

찰리 ‘박’ 올브라이트

‘랩소디 인 블루’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 4살 때부터 이미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각광받았던 음악 영재. 하버드대를 나온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 줄리아드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한국에선 찰리 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미국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한국어가 유창해 무대에서 금난새 지휘자와 재치있는 입담이 기대된다.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

오페라에서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을 맡는 배역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작을 꼽으라면 ‘카르멘’이다. 소프라노에 가려 늘 손해보지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가장 강렬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카르멘’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가 최고의 메조 소프라노라는 증거다.

백재은의 이름 앞에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목소리’ ‘압도적 존재감’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그중 가장 정확한 표현은 역시 ‘이 시대 가장 매혹적인 카르멘’이다.

이번 디즈니 홀 공연은 우리가 몰랐던 메조 소프라노의 숨은 매력을 흠뻑 느끼는 무대다.

백재은은 서울대 음대와 뉴욕의 매니스 음대에서 석사와 최고연주자 과정을 전학년 장학생으로 마쳤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입상, 주로 미국무대에서 활약했다.

티켓은

단과대 동창회장에 초대권을 일괄 배부한다. 티켓은 디즈니홀 측에서 6월 1일 이후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도네이션을 받고 있다. 모든 수익금은 한미동맹재단에 기부, 주한미군전우회를 위해 쓰여진다.

▲문의: (818) 321-2214

“주님, 북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인민군 병사



이덕송
의대 54

초가을 날씨답지 않게 소나비가 억수 같이 퍼붓던 무더운 날이었다. 1950년 9월 27일 오후, 진흙탕물에 뒤범벅이 된 인민군이 두 손으로 받쳐 든 따발총의 총구가 나를 향해 겨냥되었고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 죽을 수 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인민군 병사는 양 눈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눌러쓴 군모에 쏟아지는 빗발과 땀으로 얼룩진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었던 그 순간의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악의에 찬 패잔병 답지 않게 어딘가 순진한 면이 엿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인민군 점령하에서 강제로 차출된 의용군으로 동료들로부터 이탈된 낙오병 같아 보였다. 16~17세의 어린 소년의 앳된 얼굴. 지금도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그 당시 내 나이 16세.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처 남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피신을 못한 공직자들은 그들에게 잡히기만 하면 처형되었고 우리 가족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힌 몸이었기에 만약 그들에게 발각이 되는 날이면 가차없이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처지였다.

‘인민보육대’란 빨간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정집들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네 주변에서 나보다 어리게 보이는 학생들이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본 나는 그날부터 골방에 갇힌 몸

이 되었다.

골방이란 천장위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캄캄했으며 무더운 날씨의 열기로 한증막 못지않게 확확 달아올라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 내면서 하루 24시간을 지나려니 그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처참했다.

게다가 식량도 바닥이 나고 보니 영양실조로 인해 내 몸은 부어오르고 얼굴은 황달로 노랗게 변색되었다.

불안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가닥의 희망이란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

그리고 더 가깝게 들려올 때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몸은 마치 말라리아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렸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한가닥의 희망은 주님을 찾는 길이었다.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비오듯 흘러내리는 땅방울과 실새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나는 엎드려 큰 소리로 주님만을 불렀다. 이때였다. ‘꽂앙!’ 골방이 바닥으로 내려 앉는 것 같은 심한 진동에 나



러나오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과 승전소식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자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어서 속히 저희들을 이 고통 속에서 구해주시옵소서.”

드디어 승리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국군의 총반격이 시작되면서 연달아 터져나오는 박격포 포탄이 패잔병들의 길목을 강타했다.

불행히도 우리 집이 인민군이 도주하는 길목의 하나인 돈암동에 있었던 관계로 시간이 갈수록 포탄 세례도 더해졌다.

수도 서울의 탈환을 하루 앞둔 9월 27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점차 거센 빗발이 골방 지붕위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매 분마다 ‘꽂앙’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음소리가 더 크게,

는 벌떡 일어나 골방에서 후다닥 뛰어 내려 부엌 문을 박차고 뒷마당으로 뛰쳐나갔다.

폭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요란했던지 우리 집이 포탄에 명중된 것 같았고 집채가 통째로 주저앉는 느낌이어서 골방에 있다가는 내 몸이 박살 날 것만 같았다. 밖에는 소나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이 빗줄기에 씻기니 우선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동무, 손들어!” 하는 소리에 나는 소스라쳐 놀랐다. 5~6미터 정도 떨어진 집 뒷골목 길로 도망치듯 지나가던 인민군이 나를 보자마자 따발총을 겨누며 내뱀은 말이였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 키 정도의 높이로 쌓아 올린 돌담이 포탄의 여파로 무너져 내려 내 정체가 드러났던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높이 치켜든 두 손과 힘없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가 마구 떨리면서 얼굴은 백짓장처럼 창백해졌고 딱딱부딪치는 치아 소리와 콩 볶듯 날뛰는 심장 박동 소리외엔 들리는 것이 없었다. 그래도 두 눈은 살아 있어서 방아쇠 고리 안에 있는 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동무는 뭐얏?! 왜 거기 서 있어! 총뿌리를 아래 위로 움직이며 다그쳐 묻는 말에 나는 부동자세 그 자체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를 죽일 인민군은 아닌 것 같다’는 신뢰감이 언뜻내 머릿속을 스쳐가긴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지속되었다.

“저어, 전 ... 포. 포탄이 우리집에 떨어진 줄 알고 거... 겁이 나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빗방울에 섞여 그의 귀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고양이 앞의 쥐’격으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처절한 내 모습이 적군이 아님을 인지하였는지 나를 겨누었던 총부리를 돌려 집 쪽을 가리키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내 앞에서 급히 사라졌다.

‘아, 난 살았구나.’ 안도의 큰 숨을 내쉬 새도 없이 나는 재빨리 골방으로 되돌아왔다. 제멋대로 마구 뛰놀던 내 심장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내 주변에서 멀어져 가는 객이 되었다. 나는 반듯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인민군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따발총 방아쇠를 잡아당길 듯했던 그 손가락의 힘을 빼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두 줄기의 감격어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시계탑에서〉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시카고 문화회관은 서울대 동창회가 ‘실소유’? 모금액 절반 이상을 동문들이 기부해 ‘대주주’ 콘서트홀 기공식에 시카고 VIP 총출동 북적대



장기남
문리대 63
한인문화회관 건립위원장
시카고 한인회장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진입로는 강남(Kangnam Drive)과 순천(Soonchun Drive) 두곳이다. GPS에도 길 이름이 나와 있어 주소를 몰라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맵에 두 길 중 하나만 치면 곧바로 문화회관 위치가 뜬다.

장기남(문리대 63) 동문에 따르면 “시당국이 한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대로 길 이름을 바꿔줬다.”

서울의 강남구와 전라남도의 순천은 문화회관이 위치한 윌링과 자매도시이다. 부산과도 결연을 맺었다.

강남 드라이브와 순천 드라이브는 트래픽이 비교적 혼잡하다. 연평균 10만 여명이 드나들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는 시카고 한인들의 발걸음이 그만큼 잦다는 얘기일 터.

최근 한인문화회관이 시카고 지역 주류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400만 달러를 들여 콘서트홀을 짓는다고 해서다.

규모는 400석 가량이다. 비스코 재단으로부터 1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받아 비스코홀(Bisco Hall)로 명명됐다. 2년새 360만 달러의 기부금이 겹쳐 공연장을 짓는데 걸림돌은 전혀 없다.

지난 4월 9일 열린 기공식에는 내로라하는 시카고 지역 VIP들이 찾아와 원종일 북적했다. 시카고 한국 전통예술원의 취타대가 축하연주를 하는 등 축제분위기가였다.

기공식에는 서병인 비스코 재단 회장을 비롯해 최은주 한인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패트릭 호커 윌링 시장, 김윤태 문화회관 회장, 강정희 이사장, 국중석 부회장, 장기남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첫 삽 기념식을 갖고 시카고 한인 이민사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될 비스코 홀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기공식 후에는 새로 단장한 도서관, 갤러리, 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완공은 내년 2월이 목표다.

이번 비스코홀 건립에도 많은 동문

들이 기부행렬에 참여했다. 김윤태(의대 63) 현 회장 20만 달러, 강창만(의대 62)·강영희 명예회장 부부 80만 달러, 강수상(의대 47)·강정희 부부 50만 달러, 국중석 부회장이 20만 달러를 냈다.

했다.

처음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생존률이 5%라는 치명적인 간종담도암에 걸려 쓰러졌다. 서울 아산병원에 긴급 입원, 6개월 가량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간신히 살아났다. 장 동

은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다. 상대방이 은행융자를 못받아 결국 손을 들고 만 것.

건물주인이 빌딩을 다시 시장에 내놨다. 기회를 잡은 문화회관 측이 현금 195만 달러를 제시하자 건물주 측은 받아들이는 수 밖에. 500만 달러를 훔가하는 건물을 3분의 1이 좀 넘는 싼 가격에 사들인 것이다.

그런데 한인회 측이 회관 건물을 구입하려면 한인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카고 한인들을 상대로 모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장 동문 자신이 아예 한인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한인회장을 맡는 그야말로 ‘웃고픈’ 현상이 벌어졌다.

한인회장에 취임한 장 동문은 문화회관을 매각할 경우 시카고 총영사관과 문화회관(서울대), 그리고 한인회 등 3개 기관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었다. 훗날 매각(돈)과 관련해 후시 발생할지 모를 잡음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한인회장 임기를 마친 장 동문은 문화회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관을 명실공히 시카고 한인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

역대 문화회관 회장이 모두 서울대 동문들이어서 한인사회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 동문은 “되레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양심적이고, 특히 돈 문제에 관한 한 깨끗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동문들이 낸 기부금이 전체 모금액의 절반을 넘어 따지고 보면 서울대가 대주주나 다름없다.

동문인 한덕수 현 국무총리도 주미대사 시절 시카고를 방문, 문화회관을 둘러봤다. 뉴욕 문화회관은 한국정부가 4,000만 달러를 들여 만들었는데 미주 한인들이 주도한 시카고 회관이 규모도 훨씬 크고 시설이 잘 돼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은 문화회관이 주류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초중고교 학생들의 필드트립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장 동문은 서울대 동문들이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회관 회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 잡이예요. 그렇다고 봉급받는 자리도 아니고요. 오히려 돈을 써야 하는데 누가 맡아하겠어요. 서울대 동문외에는 책임자가 없어요.”

장기남 동문이 초대 건립위원장 역대 회장은 전원 서울대 출신이 많아 “질시의 대상은 커녕 되레 고마워해요”



비스코홀 첫삽 기공식에 앞서 포즈를 취한 시카고의 VIP 인사들. 400만 달러를 들여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연장은 400석 규모로 지어진다.



한인문화회관에 전시된 각종 소장품들. 시카고 한인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대부분이다.



문화회관은 사실상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의 자매기관이나 다름없다. 최초 건립위원장도 서울대, 역대 문화회관 회장도 전원 서울대 출신이다. 동창회장을 지낸 뒤 문화회관 회장으로 퇴임한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다.

장 동문은 부부가 서울대 출신이다. 부부가 나란히 동창회장을 역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회장을 지낸 김승주 동문은 간호대 69학번이다.

장 동문은 2005년 문화회관 건립 위원장을 맡았다. 종잣돈은 장 동문이 낸 10만 달러. 이어 세 분의 동문이 더 보태 50만 달러가 됐다.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 6년만에 200만 달러를 확보

문이 표현에 따르면 ‘기적’이었다.

일단 회관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은 확보된 상태여서 건물 물색에 들어갔다. 지금의 회관이 눈에 띄었다. 부지 2 에이커에 280여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어 문화회관으로서는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인근에 500여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한인교회 건물이 있어 대규모 공연도 가능했다.

시장에 나온 가격은 500만 달러. 그런데 마침 부동산시장이 폭락해 가격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 장 동문 측은 225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경쟁대가가 285만 달러를 써내 회관구입

서병선 동문의 우리 가곡 외길 60년 “오페라요? ‘고질라’가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뉴욕타임스도 공감, 클래식 음악계에 논란일어

뉴욕의 한 언론매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서병선 회장이님 서울대 동창회보에 꼭 보내달라고 부탁해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짝막한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서병선 회장이님 누구? 서울대 음대 성악과 출신의 테너로 동문이다. 눈길을 끈 것은 서 동문의 타이틀. 예술가곡연구회 회장으로 적혀 있다. ‘오페라의 고장’ 뉴욕에서 웬 우리 가곡을? 테너는 대부분 오페라 주역이 꿈 일텐데.

호기심이 당겼다. 알고 보니 ‘오페라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분이 다. “오페라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종합예술이지만 인간의 정서, 사랑, 영혼을 고갈시키는 사악하고 잔인한 음악이에요.”

서 동문은 1980년대 후반 ‘Opera As Godzilla’ 라는 내용의 편지를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대통령, 언론기관 등 155곳에 보냈다. 오페라를 ‘고질라’에 비유하며 음악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질라는 핵무기의 영향과 그 실험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문제를 다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이른바 괴수영화의 아이콘이다. 영화외에도 TV 드라마, 만화 시리즈로도 제작돼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인기몰이 중이다.

풀리처상 수상 기자

그가 보낸 편지는 뉴욕타임스의 도널드 헤네한 기자의 눈에 띄었다. 헤네한은 풀리처상을 받은 세계적 명성의 음악평론가. 서 동문의 주장을 가감없이 실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 인명경시의 풍조, 날로 늘어나고 있는 폭력행위 등... 모두 오페라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신봉하는데 기인한다.”

서 동문의 편지는 신문의 음악섹션 머릿기사로 실렸다. “저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같은 세계적인 매체가, 또 음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헤네한 같은 분이 내 주장에 동조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에 용기를 얻어 오페라의 폐해와 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더욱 힘을 냈지요.”

서 동문은 줄리아드 음대와. 1978년 아리스 인터내셔널 콩쿠르 성악부문에서 우승, 카네기홀에서 데뷔 독창회를 가졌다. 뉴욕의 매체들이 “독특한 목소리와 개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것을 청중에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링컨센터에서도 세차레나 리사이틀을 열었다. ‘동방에서 온 빛나는 테너’ ‘자애심을 지닌 뛰어난 아름다운 보이소’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오페라 관문을 통과해야 세계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지만

회를 잡았다.

그가 오페라의 길을 걸었더라면 ‘프리모 우오모(primo uomo)’로 불렸는지도 모른다. 오페라 남자주인공을 일컫는 최고의 찬사다.

그러나 얼마안가 꿈은 실망으로 바뀐

‘프리모 우오모’의 꿈 접고 가곡에 올인 봄·가을 두차례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저서 ‘가곡의 오솔길’ 출판 기념식도



오는 5월 7일 열리는 탈북난민 돕기 음악회. 매년 봄가을 두차례 음악회를 열어 수익금은 탈북민 사역에 쓰여진다.



◀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서병선동문.

▼ 서병선 동문의 오페라 폐해론을 뮤직섹션 머릿기사로 보도한 뉴욕타임스. 풀리처상을 수상한 음악평론가 도널드 헤네한 기자가 오페라를 괴수 ‘고질라’에 비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예술인가, 줄리아드 재학시절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 동문은 뒤늦게 슈베르트나 브람스 등이 지은 가곡이야말로 모든 성악예술의 정수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가 가곡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고교 콩쿠르. ‘아이! 아이! 아이!’라는 스페인 가곡을 불러 1등을 했다. 음대에 입학한 것은 군복무 3년을 마치고 난 1965년이다.

줄리아드에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티토 고비를 사사한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자신이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하는 ‘티토 고비 오페라 워크숍’에서 동문을 전액 장학생으로 초청한 것. 뜻하지 않게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성악가로 출세할 수 있는 기

다. 마피아가 왜 이탈리아에서 생겨났는지 이해가 된 것이다. “온 국민이 오페라에 미쳐 있어요. 내용은 난폭하고 격정적이고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질투와 저주를 담아낸 것이 오페라예요.”

마피아와 오페라

오페라 가수의 꿈을 접고는 가곡의 보급에 앞장섰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하이네와 괴테 등의 시를 바탕으로 한 가곡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김소월의 시에 음률을 얹은 우리의 가곡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독일도 한때는 동과 서로 갈라진 분단국가였다. “통일을 이룬 것은 어찌

면 가곡 덕분인지도 몰라요. 가곡엔 인내와 정직, 소박, 사랑, 지성 등의 덕목이 담겨져 있잖아요.”

서 동문은 매년 ‘불우이웃돕기 가곡의 밤’을 열고 있다. 맹인성악가 돕기, 국제결혼여성들을 위한 무지개집 돕기, 심장병어린이 돕기 등 한인사회의 그늘질 곳을 고운 화음으로 어루만지고 있다.

20년전부터는 매년 봄 가을 두차례 ‘탈북인 돕기 가곡의 밤’을 열고 있다. 서 동문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다.

첫회 때는 수익금 8,500 달러를 가슴에 차고 중국 접경지역에 가 탈북여성들을 자유의 품에 안기도록 도왔다. 지난 2010년에는 1만2,000 달러의 성금이 모여 많은 탈북인들을 구출해냈다.

서 동문의 탈북민 돕기 운동은 주류사회에서까지 알려져 큰 힘이 되고 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가게들도 우리 음악회 포스터를 업소에 부착해놓는 손님들에게서 도네이션을 받아 저희에게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서 동문은 1992년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 음악회에 초청받아 북녘땅을 밟았다. “우리 가곡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지만 이내 실망했어요. 북한엔 가곡은 커녕 클래식음악이란 게 없어요. 음악이 정치선전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5월 7일 음악회

그가 탈북난민 돕기를 결심한 배경이다. 서 동문은 오는 5월 7일 제 41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를 연다. 보리밭, 고향생각, 내맘의 강물, 그리운 금강산,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솔베이지의 노래, 가고파 ... 주옥같은 가곡을 뉴욕의 정상급 소프라노(박진원, 윤희린, 백성화, 김지유)와 테너(양준식, 김성욱)가 노래한다. 피아노 반주는 김세경이 맡는다. 물론 서 동문 자신도 출연한다.

이날 음악회는 서 동문의 저서 ‘가곡의 오솔길’ 출판 기념행사도 겸해 열린다. 공연수익금은 탈북민의 사역을 돕는 두리하나로 전달된다.

서 동문이 음악회 수익금으로 탈북난민을 도운 숫자는 무려 1,600여 명에 이른다. 우리 가곡이 이처럼 많은 난민들을 자유의 세계로 인도한 것이다. 음악이 때로는 기적을 빚어내기도 한다.

▲문의: 212-567-6919

“동창회에선 은퇴가 없어요” 이호진(간호대 74) 총무국장, 종신이사 가입

이호진(간호대 74) 동문은 미주 동창회에서 ‘종신이사 홍보대사’로 통한다.

올해들어 이 동문이 유치한 종신이사 가 거의 10명에 가깝다. ‘서울대 사랑은 종신이사 가입으로’ 하며 권유하면 대부분 들어준다고 한다. 10명은 이 동문 자신도 포함된 숫자다.

16대 회장 임기는 6월 평의원 회의와 함께 마무리 된다. 차기회장 측은 이 동문의 유임을 강력히 원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과 함께 고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설 회장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종신이

사 회비 3,000 달러를 선뜻 냈다.

이 동문은 동창회에서 총무국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노명호(공대 61) 회장에 따르면 “이 국장이 없으면 동창회가 안 돌아간다.” 신임이 각별하지만 그 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 일 터다.

임기말이 가까워 대 총대총 넘어갈법 하지만 이 동문은 오



히려 요즘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우선 6월 9일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하는 평의원 회의 준비다. 서울대 신임 총장을 비롯해 한국 총동창회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여서 요즘 밤잠을 설치는 날이 적지 않다.

그 뿐이 아니다. 6월 28일에는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금난새(음대

66) 동문의 지휘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가 열린다. 디즈니홀은 2,300석 규모의 세계적인 공연장이다. 초청인사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주변에선 이 동문을 일컬어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라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다.

“이제 종신이사 됐다니 총무국장의 직을 내려 놓아도 동창회를 떠날 수 없게 됐네요.” 이 동문의 동창회 사랑에는 은퇴가 없다.

“눈 떠 보니 하나님이다” 곽건용(문리대 76)의 일곱번째 저서 창세기 1~3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설

창세기 1-3장의 두 가지 창조이야기는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고 영생과 죽음 등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서구절로 인정되어 왔다. 여기 ‘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원죄 교리까지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저자 곽건용은 문리대 사회학과 76학번으로 LA의 향린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창세기 1-3장의 두 가지 창조이야기를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해석한다.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으로만 읽지 않고 ‘관계의 기원’이란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읽는다.

에덴동산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왔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동산 한 가운데 두고 그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그 날 반드시 죽을 터이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유일한 금령을 어기고 기어이 그걸 따먹고 말았다. 먹어도 된다는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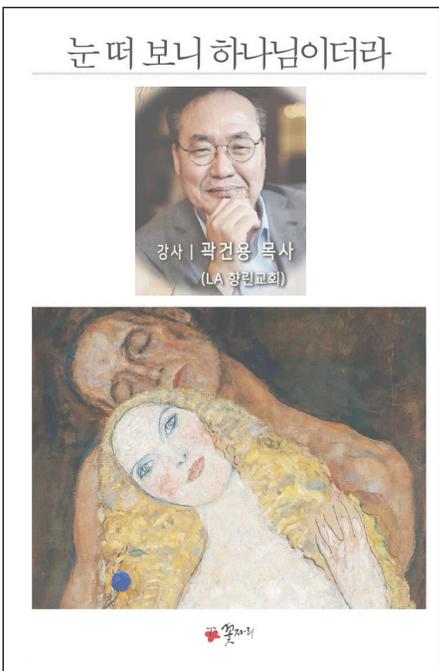
고대 중동문화권에는 인간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 거기서 인간은 천신만고 끝에 영생할 기회를 거의 잡

았다가 막판에 실패한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생명 나무가 손닿을 데 있었다. 천신만고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하지만 첫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선악과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걸 바라보고 욕망이 일어난데 뱀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 처럼 될 거라고 유혹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은 허락하고(결국 인간은 그걸 얻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다) 지식은 허락하지 않았을까? 뒤집어 말하면 왜 인간은 영생보다 지식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에덴동산 이야기의 저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썼고 그걸 후대에 남겼을까?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이야기에서 뭘 읽어낼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런 질문들에 답을 찾고 있다.

곽 동문은 지난 4월 14일 서울대 동문들을 비롯한 지인들을 초청,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모임은 ‘깜짝놀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먹고 마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맘껏 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평생 책을 한 권 내기도 힘든데 곽 동문은 일곱 권이나 냈다. 앞으로도 쓰고 싶은 주제들이 더 있어서 이 어려운 일을 더 열심히 해볼 작정이라고 했다.



화제의 동문 유튜버 ‘멘디쌤의 심리학 이야기’

“자존감, 성취만으로 높아지지 않아요”



조명국
심리 08

‘자존감’은 때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심리학 용어다.

모든 행동을 ‘자존감이 낮아서, 높아서’로 해석하기 일쑤다. 도대체 자존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조명국 동문의 채널 ‘멘디쌤의 심리학 이야기’를 보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마음’. 조 동문이 정의하는 자존감이다.

그는 심리학과 졸업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UX디자인과 심리학을 접목한 상담 서비스를 열었다. ‘자존감이 낮다’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접하고, 자존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제대로 된 지식은 부족함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 자존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였다.

6만 구독자 제각기 사연은 달라도 마음이 힘겨워 채널을 찾았을 터.

그는 자존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거절 두려워하지 않기, 완벽주의 벗어나기,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안한다.

“애초에 너무 높은 자존감이란 개념은 없다”며 자신감이 과하거나 단정적인 말투 등은 오히려 낮은 자존감의 발로라고 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선 ‘편안함과 단단함’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한때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스터디를 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서울대인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성취’는 자존감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뛰어난 능력은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건 무엇을 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해내지 못 하면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성해야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를 스스로에게 묻고, 직면해 보세요.”

나의 능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되도록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기가 괜찮다고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성과를 꺼내릴 필요가 없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 불편하게 하진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조 동문은 1인기업 ‘멘탈경험디자인’을 운영하며 자존감 상담과 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책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아까 화 냈어야 했는데’를 냈다. 채널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존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최재울의 임상노트
(수의대 80)

동물을 지극히 사랑한 노부부
“아픈 애완동물 치료해 달라” 5천달러 기부

몇년 전 한 백인 노부부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내원했다. 그 고양이는 꽤 심각해 보였다. 나는 진찰을 하고, 치료 계획을 말하며 치료 비용은 약 300 달러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해줬다. 노부부는 흔쾌히 내 치료계획을 받아들이고는 비용을 지불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고양이는 불행하게도 도중 숨지고 말았다. 이런 경우가 수의사로서는 가장 난감하고 당황스럽다. 예상되는 상황은, 그 노부부가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 하게 될 것은 물론, 내게 거센 비난을 퍼붓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노부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떤 치료를 하였고, 고양이가 왜 죽었는지 사실대로 설명해줬다. 그러자 노부부는 갑자기 나의 손을 잡으며 ‘Thank you’를 연발하는 것이 아닌가?

“돌봐줘 고맙다” 보답

나는 예상과 전혀 다른 노부부의 반응이 의아했다. 고양이가 죽은 것이 나로서는 정말 미안한데 왜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지 물었다.

노부부의 설명은 이랬다. 자식같이 사랑하는 고양이가 몹시 아파서 급히 다른 병원에 데려 갔는데, 그 병원 수의사가 진찰도 잘 하지 않고 즉시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해서 화가 매우 났었다고 한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 갔는데, 의사가 즉시 안락사 하자고 하면 부모 심정이 어땠겠는가 반문하며 분개해

했다.

그래서 필자의 병원에 다시 데려 왔는데 닥터 최는 안락사는 전혀 언급을 안한채 자세히 진찰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줘서 고맙다는 것이다.

비록 고양이는 죽었지만 자신들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내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물에게 지극정성인 노부부에게 존경심이 갔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백인 노인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다.

내가 프론트로 나가니, 이번에는 건장한 청년을 대동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다. 아마도 지난 번에는 감사하다고 돌아갔지만, 다시 곰곰히 생각하니 억울한 것 같아

서 내게 항의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혼자도 아니고 건장한 청년과 함께.



반려견을 검진하고 있는 수의사 최재울 동문.

어쨌든 나는 인사를 하며 무슨 일이 시냐고 물었다. 그 노인의 말씀이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난번엔 내 자식같은 고양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돌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다른 아픈 고양이들도 많을 것이고, 그 중에는 치료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을 위해서 닥터 최에게 5,000 달러를 기부하려고 한다. 이 돈을 아픈 고양이들 치료에 써달라. 괜찮겠느냐?”

노인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청년은 자신의 손자이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손자는 운전이 어려운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온 것이다.

나는 마음 속으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던가?

은퇴하기 전 자신의 직업이 엔지니어였다는 노인은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더 많은 돈을 아픈 동물을 위해 기부하고 싶지만 지금은 5,000 달러가 최선이라고 했다.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

그 후 몇달이 지났다.할아버지는 새 고양이를 입양하셨다. 그리고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나는 반갑게 맞으면서 지난 번 기부하신 돈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돈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노인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 돈은 다른 아픈 고양이들을 위한 돈이에요. 내가 쓸 돈이 아닙니다.”

노인은 결국 진료비를 내고 돌아갔다. 얼마후 이번에는 손자가 자신의 고양이를 데리고 내원했다. 그 손자에게도 똑같이 진료비는 안내도 된다고 말해줬다. 지난 번 할아버지가 도네이션한 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손자 역시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그 돈은 다른 동물들 위해 쓰여져야지 내 자신의 고양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내 고양이 진료비는 내가 내겠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직한 사람들인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임상 수의사로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www.duouso.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영양제 적절히 드세요”

칼로리 섭취량 낮추면 노화 속도 느려져

얼마전 시댁 쪽 친척이 우리집을 방문하였다.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까지 했고, 한국에서는 방송에도 제법 나오고 해서 잘나가는 영양학 박사로 인식하는 시댁 친척이 좀 있다.

이번에 방문한 친척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냐 물으니 영양학 박사님 집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일반 집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였다. 영양제가 종류별로 잘 갖추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영양제가 없는 게 신기했던 모양이다. 그러고보니 우리집에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젤리형 성인종합영양제, 남편 먹는 유산균이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잘 먹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영양제 강국, 아니 영양제 천국인 미국에서는 더 한 것 같다. 얼마 전만해도 미국에 왔다 한국 갈 때 선물로 가져가는 필수 아이템은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이었다.

실제 미국에 와서 보니 영양제 규모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 요즘 한국도 건강기능 식품이 많이 생겨났으나, 여전히 미국에 직접구매해서 국제 배송을 받아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 친척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다. 친한 친구가 미국에 주문해서 p5p(비타민B6) 제품을 먹고 있는데 손

발얼굴 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혹시 영양제 과잉의 문제인지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흔히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과잉으로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운다. 그래서 의료인들 중에 메가도스의 영양제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쉽게 나갈 수 있고, 물에 녹은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잉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보면 과잉에 의한 증상 예시는 항상 나와 있다. 잘 경험하지 못하니 교과서에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영양제 과잉의 사례들은 의학저널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2006년도에 한국에서 비타민B6를 장기간 먹고 사지마비가 되어 병원을 찾은 사례 발표가 있었다.

혈중 비타민B6를 검사해보니 정상수준(40-120ug/L)의 5배가 넘는 525 ug/L

이었다. 소변으로 나갈 수 있는 수준 이상을 먹으면 결국 인체에 남아서 쌓일 수 밖에 없고 조직과 장기 여기저기에 쌓여 결정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신경 조직에 쌓였다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영양이 충분하다는 것 또는 과잉이라는 것은 중독 증상 외에 근본적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장과 노화 관련 문제이다. 컬럼비아대 노화센터 연구

진은 장기간의 식단실험을 통해 열량(칼로리)을 줄인 식단이 노화를 억제한다는 걸 밝혀내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년간 칼로리 섭취량을 25% 줄인 식사를 꾸준히 한 결과 노화 속도가 2~3% 느려졌다. 연구진은 “노화 속도를 2% 둔화시키는 것은 사망위험을 15% 줄이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금연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게 먹으면 신체의 시계가 천천히 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어떤 의

미가 있을까? 최근 한국은 성조숙증 증가가 심각하다. 2008~2020년 성조숙증으로 치료받은 한국 9세 미만의 여아와 10세 미만의 남아 13만3,283명을 분석한 결과 성조숙증 유병률이 여아 15.9배, 남자 8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전문가들은 비만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비만은 영양과잉의 상태이고 과잉은 신체 발달을 빠르게 하여 사춘기 도달을 빠르게 한다.

그런데 비만이 아닌 아이들 중에도 성조숙증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소리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영양제 섭취로 인한 영양과잉이 한 요인일 수 있다. 영양 과잉은 인생의 시계를 빨리 돌리고 이른 사춘기를 만들 수 있다.

빠른 사춘기는 성장판을 조기에 닫아 결국 키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영양이 좋아져 키가 점점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된 데이터를 보면 현대에 와서 키가 줄어 들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말이 생각난다. 현재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권장량을 계산해서 그보다는 적게 먹도록 조절하자. 음식으로도 먹고 있으니 영양제로만 권장량을 채우면 결론적으로는 과잉이 되니 말이다.

〈식품영양학 박사〉



HDL이 착한 콜레스테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일 수 있어

HDL 콜레스테롤이 이미 높은 사람은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 교수 연구팀(김혜준 연구원, 차의과학대학교 정석송 교수)은 2009-2012년 2년 주기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은 7만7,134명을 관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HDL 콜레스테롤이 60 mg/dL 이상인 성인 남녀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추가적인 증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HDL 콜레스테롤의 결핍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의 영향이었

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이미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가장 적은 4분위 그룹(2 mg/dL 이상 감소)에 비하여 가장 높



40대 이상 성인 7만여 명 조사 특히 뇌졸중 위험 26% 더 높아

증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의 증가는 65세 미만, 여성, 정상체중, 비흡연

은 4분위 그룹(15 mg/dL 이상 증가)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5%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26% 더 높았다.

이러한 HDL 콜레스테롤의

자, 비흡연자 및 중고강도 운동을 하는 군에서 보다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동반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다는 가설이 있었으나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그룹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미 높은 수준의 HDL 콜레스테롤의 추가적인 증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가 유력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심혈관질환 관련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Cardiovascular Diabet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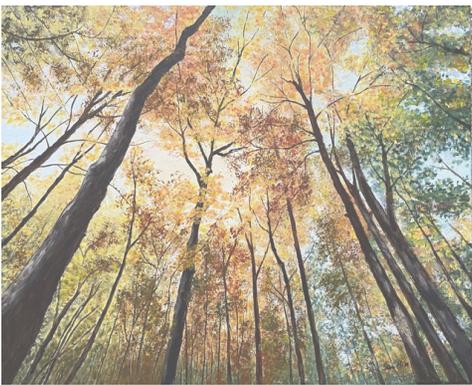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

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결혼 50주년 기념 전시회 김내도(공대 62) · 그레이스 김 부부 은퇴 후 17년간 배운 수채화 한국화



은퇴 후 한 언론매체가 운영하는 시니어 센터에 등록, 드로잉을 배웠다. 일년 쯤 후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렸다.

손주 친구들이 와서 보고는 “저도 그려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 이에 고무,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에 매진하게 됐다.

아크릴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림에 색채가 들어가니 점점 재미가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그릴 때가 많았다.

그림 소재는 내가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 중에서 골랐다. 캐나다 로키의 에메랄드 호수에서 카누를 타는 그림, 노바 스코샤의 유명한 등대, 알프스의 마테호른 산과 호수, 애리조나 세도나의 바위, 코네티컷주의 늪과 갈대 숲 사이로 흐르는 강줄기, 덴마크 코펜하겐의 해로 등. 때로는 정물화도 그린다.

우리집 지하실에는 테이블 두개가 창문 쪽에 놓여있다. 하나는 아내가 쓰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용한다. 한 쪽 벽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뒀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섬세한 디테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도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은 완성된 나의 그림을 볼 때 느끼는 기쁨 때문이다.

문득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구절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림을 하나 완성해 놓고 보면 서도 이렇게 흐뭇하고 기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본다. 작은 그림에서도 이런 창조의 기쁨이 있나보다,

우리 부부는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함께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5월 28일까지 ‘인생의 기쁨(Joy of Life)’이라는 주제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그린 스프링가든 원에 센터에서 아크릴 24점, 수채화 24점, 동양화 22점 등 총 70점이 전시된다.

원래는 2020년 준비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연기돼 이제야 전시회를 열게됐다.



Grace & Steve Kim's Art Exhibition
“Joy of Life”
April 4 - May 28, 2023
Artists' Reception:
Sunday, April 16, 2023
1 pm - 3 pm
Green Spring Gardens Horticulture Center
4603 Green Spring Road, Alexandria, VA 22312
703-642-5173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은퇴의 좌우명 ... 성공에 집착말라 죽는 날까지 치료? 의사의 욕심, 환자에게 '독' 40대에 정점 찍고 65세 넘으면 의료과실 많아



노영일
의대 62

은퇴를 앞두고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의업을 훌쩍 떠날 수 있을까. 일을 그만두면 무엇으로 시간을 보낼까. 여생을 지지할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가. 그저 죽을 날까지 목숨만 연장하는 것인가.

나는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잠자는 시간과 최소한의 개인적인 시간을 빼고는 하루 24시간 불침번을 서고 일년 365일을 그렇게 일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같이 뛰던 동료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어느덧 내가 병원 의사들 중에서 최고령자가 되었다. 어떤 때는 젊은 의사들 가운데서 눈치가 보이기도 하였다.

선배의사가 존경을 받는 시대는 지났고 고령이 오히려 악점이 되기 십상이었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온 우리 세대는 디지털 시대에 자라난 젊은 세대 보다 뒤지는 경우가 많았다. 선배로서 후배를 가르쳐야 할 텐데 오히려 후배들에게서 배워야 할 형편이었다. 발 빠른 전산화는 우리 세대를 비능률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힘들었고 시간도 더 많이 들었다. 최근 몇년 간은 업무량을 줄였지만 일단 일을 하다 보면 부담감은 마찬가지였다. 체력의 한계도 느꼈다. 직장 동료들은 '언제 은퇴할 거냐' 고 자주 물어왔다.

적절한 은퇴시기를 가늠하던 도중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또 3년을 어영부영 지냈다. 그러다가 6개월 전 은퇴를 단행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자니 허탈감마저 들었다. 몸과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북했다. 일할 시간에 집에 있자니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절부절 불안감까지 들었다. 이것이 워커홀릭 증세인가. 무슨 계획을 세웠다가도 발동이 안걸려 포기해 버린다. 무위도식의 혼돈상태가 얼마간 지속됐다.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했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먼저 은퇴한 친구들 중에는 은퇴하니까 아주 좋다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친구는 한 일 년 지나야 새 생활에 적응이 된다고 하기도 했다. 아내는 하루 세끼 밥해 먹어야 하는 삼식이 집에 있으니 자유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눈치이다. 아내 따라 샵핑도 가고 식료품점에 가기도 한다. 아내 심부름도 종종 한다. 위염이 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하잘 것 없는 신세로 전락한 기분이다. 콧감 빼먹듯 돈 쓰는 데도 신경이 쓰인다.

내 심리 상태를 눈치챘는지 큰 딸이 책을 한 권 보내주고 읽어보라고 했다. Arthur Brooks 가 쓴 'From Strength to Strength' 라는 책이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도 말년에는 자기 연구에 더 진전이 없자 자기의 업적에 불만을 느끼고 자기 인생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노년에 지능의 감퇴를 경험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 밖에도 많은 천재들이 말년에 자기 능력의 감퇴를 느끼고 실망과 불행 속에 살았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곡선을 따라간다. 지능이나 능력이 발달하고 정점에 이르고 그리고는 필연적으로 하향곡선을 따라간다. 일반적으로 30대가 지나면 벌써 하향 곡선에 들어선다. 운동선수나 예술가 등은 좀 더 일찍 정점에 도달하고 과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은 조금 늦게 정점에 이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의사는 40대에 정점에 이르고 65세가 넘으면 의료과실을 저지를 확률이 50% 증가한다.

그러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늙어가며 점점 추하게 시들어져가는 모습으로 여생을 좌절과 불행 속에 살아야 하나? 아니면 빨리 살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젊어서 죽고, 아름다운 모습

을 남기는 소위 '제임스 딘 공식'을 따라가는 것이 이상적일까.

저자는 누구나 경험하는 첫 번째 곡선이 내리막길을 갈 때 두번째 곡선을 만들어 도약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곡선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을 이용한다면 두 번째 곡선은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련되고 정제된 결정성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을 이용하는 것이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바로크 음악의 개척자다. 그는 한때 최고의 연주자였으며 작곡가였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 영예는 오래가지 못했다.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났다. 바하는 연주와 작곡을 그만두고 Art of Fugue라는 일종의 음악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는 불후의 명작으로 그는 후세에 큰 이름을 남겼다.

이 책의 저자 아더 브룩스 자신도 젊었을 때 훌륭한 호른 연주자였으나 나이가 들에 따라 자기의 연주 능력이 떨어짐을 실감하고는 소셜 사이언스를 공부해 대학교수가 되고 많은 저작물을 내어 성공적인 여생을 보내고 있다.

또 저자는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성공에 집착하지 말라. 한 가지 성공을 하면 다음 성공에 매달리게 되고 계속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과 실망에 빠진다. 이는 마치 중독현상과 비슷하다.

둘째, 자존심, 두려움, 사회적인 비교와 고립을 극복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여 남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고 우월해지기를 바라면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셋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가 마음의 행복을 준다고 한다. 만족감=내가 가진 것 ÷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감은 떨어진다.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내가 원하는가 보다 왜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를 따져보고 목록을 줄여 나가야 한다.

넷째, 죽음에 대하여 숙고하라. 자기 직업을 숙명이라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능력이 감퇴할 때 좌절감을 느끼고 죽음을 경험하기 쉽다.

다섯째, 행복해지기 위해여는 친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로 사귀는 친구보다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스인들의 개념으로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philia(친구간의 사랑), eros(이성간의 사랑), storge(부모와 자녀들간의 사랑), philautia(자기 사랑), xenia(친절,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 등등. 그러나 이들을 초월한 사랑은 agape(신성한 사랑)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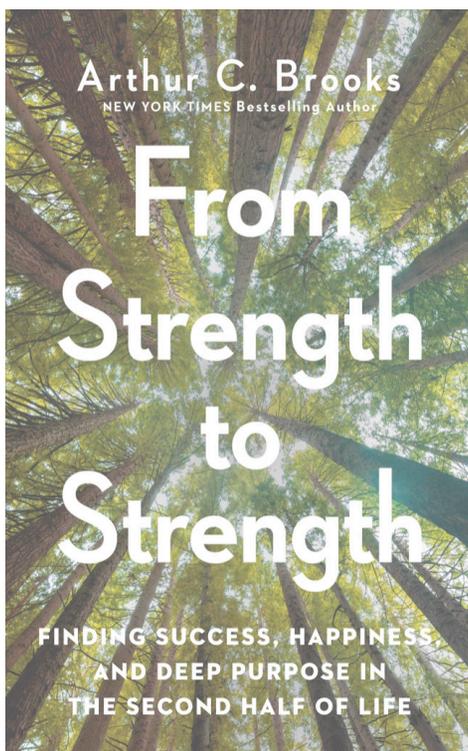
바다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밀물 때 보다 썰물 때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안다. 젊었을 때의 첫 번째 곡선이 하향선을 그릴 때 두 번째의 곡선으로 뛰어넘어 힘에서 힘으로 도약하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여생을 살 수 있다고 작가는 결론을 맺는다.

죽는 날까지 환치료를 하다가 쓰러지는 의사가 인술의 모범으로 존경받던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의사 자신의 욕심이지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팔십종수(八十種樹)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80세에 마당에 과일 나무를 심었다. 이웃들은 그가 과일이 열리기도 전에 죽을 텐데 나무를 심는다고 모두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살아 맛있는 과일을 따먹으며 즐거운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단편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다 떠난 황폐한 산골에 홀로 살던 양치기 목자인 엘제아르 부피에는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매일 나무를 심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이 황폐했던 산간마을이 나무가 무성한 낙원이 되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그들은 누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나무가 저절로 자란 것으로 생각했다. 부피에는 양로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나는 어떤 두 번째 곡선으로 도약을 해야 하나?



**‘아가페’ 종교적 신앙심이 큰 도움
남들과 비교하면 좌절감만 느낄 뿐
원하는 목록 계속 줄여나가야 행복**



송응두
공대 59

나의 원자력공학과 시절

나는 원래 문리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님과 담임선생님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대했다. 물리와 나오면 잘돼야 고등학교 선생, 그러나 공대를 나오면 큰 회사에 엔지니어로 취직할 것이며 열심히 해서 공장장, 상무, 전무로 승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타협점을 찾은 것이 신설되는 원자력공학과다. 물리에 가까우면서도 소속은 공대이니 양쪽이 다 조금씩 양보해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공학과는 정말 '신설' 이었다. 전담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원자력공학과 인연은 미국 연구소 6개월 연수가 전부였다. 그나마 1학년은 고등학교 연장선상의 교양과정이어서 별로 문제될 게 없었

다. 2학년부터는 그러나 전공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원자력공학과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핵물리학부터 기계과의 열전달, 전기과의 교류이론, 금속과의 금속재료, 화공과의 물리화학 등 광범위하고 해박한(?) 기반을 쌓게 됐다. 선배가 없었으니 졸업하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한다는 개념도 없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ROTC(학도군사훈련단)에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등록했다. 졸업 후 2년은 군 복무때문에 직장걱정을 안해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미국유학을 준비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하며 공대 원자력공학과에 강사를 하시고 언론에 좋은 글을 많이 쓰시어 유명해진 한 분이 원자력연구소 소장계 청원을 해서 갈 곳이 없는 10명의 1회 졸업생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연구소에 잠시 있으면서 외국유학 준비를 해서 나가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이 그 절차를 아 유학을 떠났으며 전공도 다양하게 원자력공학과에서 물리, 전자, 금속, 컴퓨터, 통신 등으로 진출했다.

2년 아래 후배인 3회는 입학정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취직이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한전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함에 따라 후배들은 취직도 잘 되고 정원도 늘어났다.

나는 당초 UC 버클리 원자력공학과에 등록했으나 연구분야가 응용물리 쪽이어서 물리과의 과목을 많이 택했다. 그러다 아예 연구과제를 물리학 쪽으로 바꾸고 실제로 물리학과로 옮겨서 박사논문도 물리학으로 한 후 전문직 활동, 경력을 물리학자로 관리했다. 어느 의미에서 나의 고 3때 꿈을 억지로 성취한 셈이다.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를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환경과 수요에 따라 관련있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물리학 전공으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점차 전자, 반도체, 위성, 통신, 방사선 환경분야로 넓혀갔다. 리돈도 비치에 있는 TRW(지금은 Northrop Grumman)에서 경력을 쌓고 있을 때 한국통신(Korea Telecom) 초청으로 무궁화 통신위성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1990년부터 5년간 위성 구매계약, 설계, 제작, 시험, 인수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궁화위성사업은 당시 약 3,000억원

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었으며 내가 관리했던 위성설계 제작은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세계굴지의 위성 제작업체 기술진을 상대로 모든 기술사항을 검토, 확인, 검증해야 했다. 통신위성은 전자, 전기, 통신, 재료, 구조, 기계, 물리, 화학, 열, 방사선, 우주환경 등의 복합지식을 요구하는 기술체로 이 모든 분야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상대방 제작진과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한인 해외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전력을 갖췄으나 그 지휘자로서 나의 역할이 중요했다. 40여 년 전 공대 원자력공학과에서 광범위한 공학의 바탕을 갖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상대방 기술진이 "닥터 송은 계약부터 기술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찬사를 던졌다. 내가 TRW에서 위성개발과 관련해 약간의 기여를 했지만 위성 전체를 해본 적은 없었다. 무궁화위성사업에 내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공대 원자력공학과에서 공부했던 해박한(?) 전공과목 때문이었으며 뒤늦게 이제야 감사하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해체된 지 벌써 40년이 돼가는 데도 여전히 소비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팝그룹. 스웨덴의 4인조 혼성그룹 '아바(ABBA)' 를 두고 하는 얘기가. 21세기에 들어섰지만 낡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데뷔곡은 1974년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의 '위털루'. 나폴레옹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결전을 벌였지만 패배한 곳이다. 아바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남녀의 사랑에 빗대 노래했다. 촘촘하고 섬세한 멜로디에 감성을 듬뿍 입혀서.

그로부터 2년 후 아바의 명성은 최절정에 오른다. '페난도(Fernando)'가 공전의 히트를 친 것. 1000만장이 넘게 팔렸으니 까탈스런 평론가들이 비틀스와 엘비스 프레슬리에 견줄 만도 했겠다.

'페난도(페르난도)'의 주제는 전쟁. 이 점에서도 '위털루'와 겹친다. "페르

난도, 저 북소리가 들리는가"로 시작되는 노래는 전쟁의 무서움을 얘기한다.

"우린 아직 젊어 죽을 준비가 안돼 있다"며 '리오그란데'(Rio Grande)강을 건넌던 그날 밤을 떠올린다. 리오그란데는 큰 강이라는 뜻이어서 '한강'이라 불러도 관창을 성 싶다.

노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 비록 지금 늙고 병들었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다시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결기가 담겨있다. 자유는 목숨과 맞바꿀만큼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이니까.

'페난도'의 배경은 1910년의 멕시코 혁명이다. 당시 대통령은 포르피리오 디아즈.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무려 35년이나 장기집권한 독재자다. 그가 7선에 나서자 마침내 멕시코 전역에서 저항의 횃불이 솟아 올랐다.

혁명의 불을 당긴 지도자는 프란시스코 마데로. 독재권력을 풍자한 '대통령 왕위계승론'을 펴내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떠올랐던 인물이다.

마데로는 원래 멕시코의 10대 부호에 꼽히는 가문 출신이다. UC버클리에서

리오그란데와 한강

수학한 탓인지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깝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내걸고 집권층과 협상을 벌였으나 반역혐의로 체포돼 옥에 갇힌다.

경비원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자 텍사스로 망명해 세를 모은 뒤 혁명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는다. 아바의 노래에 등장하는 페르난도 역시 혁명군의 일원으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넜다.

마데로는 결국 '햇불 대통령'의 꿈을 이룬다. 하지만 얼마안가 군부가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때 나이 불과 39세. 개혁의 열매가 채 영글기도 전에 민주주의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이다. 이후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고착화 됐고 부패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5년 전 쯤 여름, 리오그란데 강을 건넌 90여명의 멕시코인들이 오븐처럼 달아오른 트레일러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이 트레일러가 '아메리칸 드림'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믿었을 것이다.

이 '죽음의 여정'을 보며 멕시코 혁명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마데로의 혁명이 성공했다라

면 이 같은 참사는 없었을 텐데. 지금쯤 자원부국, 경제대국이 돼 국민들이 비자 없이 리오그란데 강을 맘 놓고 건널 수 있었을 텐데.

그 뿐인가. 국경에 장벽을 쌓을 일도 없을 테고. "그날 밤 하늘엔 별들이 밝게 빛났지. 페르난도, 자네와 나,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말이야." 100년 전 흘린 피가 헛된 것 같아 노래가 더욱 애절하게 들린다.

리오그란데가 가난과 억압을 상징한다면 한강은 기적의 또다른 표현일 터다. 전쟁과 최빈국의 오명을 끌어내고 이제 세계 10대 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 한미동맹 70년이 일궈낸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오는 6월 28일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평화 음악회가 금난새(음대 66) 동문의 지휘로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리오그란데가 왜 실패했는지, 한강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바가 노래에 담아 부르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

〈편집고문〉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간호68)
남가주 - 김영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남가주 - 오드라 홍(음대70)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조지아 - 김현희(간호59)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필라델피아 - 김영우(공대55)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박종수(수의5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기형(상대75)
김대중(의대70)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김정빈(공대66)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건호(법대53)
신영찬(의대62)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이호진(간호74)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경배(의대69)
전희택(의대58)
정동구(의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서영숙(간호67)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욱(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희열(의대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홍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호숙(사대65)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이지우(의대68)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헌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커네티컷

故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하와이

故최경윤(사대51)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810 Wilshire Blvd. #1509,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대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564-2255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00 (2022.7 - 2023.6)	<input type="checkbox"/> \$240 (2022.7 - 2023.6)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200 (2022.7 - 2024.6)	<input type="checkbox"/> \$480 (2022.7 - 2024.6)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중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 강경수(법 58)
- 강동순(법 59)
- 강윤희(간 46)
- 강창만(의 58)
- 강춘자(간 69)**
- 강호석(상 81)
- 강홍제(상 53)
- 고석규(치 65)
- 고윤석(공 62)
- 권기상(대 72)**
- 권봉성(문 64)**
- 김건진(문 62)
- 김경(문 63)
- 김경두(공 69)
- 김경수(사 54)
- 김경옥(미 61)
- 김광은(음 56)
- 김교복(농 63)
- 김국간(치 64)
- 김근(농 78)
- 김남영(공 53)**
- 김동산(법 59)**
- 김명숙(농 58)
- 김문업(농 83)
- 김범수(문 61)**
- 김병연(공 68)
- 김병완(공 58)
- 김상찬(문 65)
- 김석구(공 66)
- 김석훈(법 59)
- 김성진(공 56)
- 김성호(법 64)**
- 김수향(간 68)
- 김순길(법 54)
- 김순자(치 57)
- 김영덕(법 58)
- 김영중(치 66)
- 김유경(생 60)
- 김용채(문 61)**
- 김원탁(공 65)
- 김원호(약 63)
- 김일영(의 65)**
- 김은숙(미 62)
- 김정(치 59)
- 김정호(농 59)**
- 김중범(상 64)
- 김중표(법 58)**
- 김준일(공 62)**
- 김재영(농 62)
- 김진식(공 66)
- 김창진(공 77)**
- 김태환(문 78)**
- 김향자(약 61)
- 김희성(음 00)
- 김학철(의 55)
- 김희창(공 64)**
- 니두섭(의 66)
- 노명호(공 61)**
- 니승욱(문 59)
- 류정순(생 69)
- 문경호(문 59)
- 문병길(문 61)
- 박명근(상 63)**
- 박부강(사 64)
- 박상원(대 20)**
- 박서규(법 56)
- 박영욱(사 55)
- 박용(문 89)**
- 박용필(문 66)
- 박우선(공 57)
- 박원준(공 53)
- 박은숙(미 62)
- 박인수(농 64)
- 박인창(농 65)
- 박일우(의 70)**
- 박입하(치 56)**
- 박자경(생 60)
- 박정모(문 66)
- 박중수(수 58)**
- 박찬호(농 63)**
- 박창규(약 59)
- 박취서(약 60)
- 박혜옥(간 69)
- 박호현(의 52)
- 박홍근(공 64)**
- 박희자(음 68)
- 방명진(공 73)
- 배동원(공 65)
- 백승호(치 55)
- 백혜란(미 70)
- 벤자민 홍(문 53)**
- 서동영(사 60)**
- 서명희(농 67)**
- 서세진(음 62)
- 서의원(공 66)
- 서치원(공 69)
- 성낙호(치 63)
- 성주경(상 68)
- 손기용(의 55)**
- 송학식(공 61)
- 송명국(문 81)**
- 신건호(법 53)
- 신동국(수 76)**
- 신영찬(의 62)**
- 신정연(미 61)
- 심재호(공 75)

- 양승문(공 65)**
- 양승조(음 70)
- 양태준(상 56)
- 오윤표(음 56)
- 오선웅(의 63)
- 오찬수(약 57)**
- 오형원(의 53)**
- 원용민(공 58)
- 위중민(공 64)
- 유석훈(상 61)
- 유영자(음 63)
- 유이중(농 74)**
- 유석환(치 55)**
- 유준석(공 52)
- 육태식(의 61)
- 윤경민(법 55)
- 윤석철(상 60)
- 윤희성(치 65)**
- 이강훈(치 65)
- 이갑섭(치 54)
- 이건일(의 62)**
- 이덕승(의 54)
- 이미정(의 78)
- 이방기(농 59)
- 이범도(치 74)
- 이범식(공 61)
- 이병성(공 74)
- 이서희(법 70)
- 이성자(간 76)**
- 이소희(의 61)**
- 이영수(상 60)
- 이영현(간 70)
- 이용환(공 64)**
- 이원익(문 73)
- 이원택(의 71)
- 이익삼(사 58)**
- 이장길(치 63)
- 이재권(법 56)**
- 이재룡(공 71)
- 이정근(사 60)
- 이정화(공 52)
- 이종모(간 69)
- 이준호(상 65)**
- 이진영(의 65)
- 이창우(공 54)
- 이창신(법 57)
- 이재진(문 55)
- 이광평(상 61)
- 이해영(공 56)
- 이호(음 92)**
- 이호진(간 74)
- 이홍표(의 58)
- 이희중(공 68)
- 임낙균(약 64)
- 임동규(미 57)**
- 임동호(약 55)
- 임문빈(상 58)**
- 임재영(공 59)
- 임창희(공 73)
- 장근수(간 73)
- 장기열(치 55)
- 장기창(공 56)**
- 장난희(간 74)
- 장동석(문 66)
- 장대욱(음 57)**
- 장소현(미 65)
- 장원경(미 73)**
- 장윤희(사 54)**
- 장인숙(간 70)
- 장정용(미 64)**
- 전경배(의 69)**
- 전낙관(사 60)
- 전원일(의 77)**
- 전범수(농 71)
- 전상욱(사 52)
- 이학은(약 57)
- 손원배(농 70)
- 송근숙(간 66)
- 송기인(의 60)
- 송용길(대 69)
- 신두식(의 58)
- 신용남(농 70)
- 신정자(간 62)
- 신춘희(간 56)
- 안태홍(상 65)**
- 양명자(사 63)
- 양성택(상 66)
- 오용호(의 66)
- 오용환(약 68)
- 유규환(사 60)
- 우상영(상 59)
- 원인순(문 67)
- 유재섭(공 65)
- 유택수(문 58)
- 유호근(문 71)
- 윤병남(사 62)**
- 윤영철(공 57)
- 윤인숙(간 63)
- 윤철(문 54)
- 윤희정(문 59)
- 이강욱(공 70)**
- 이강홍(상 60)
- 이명중(농 72)
- 이문봉(미 76)
- 이상근(경 84)
- 이상우(의 56)
- 이영일(의 60)
- 이영민(의 59)
- 한정현(치 55)

- 한충철(치 62)
- 한충택(공 60)
- 한태준(상 56)
- 한송욱(간 73)
- 현기웅(문 64)
- 홍병각(문 55)
- 홍선례(음 70)
- 홍선일(공 71)
- 홍성애(간 60)
- 홍수용(의 59)**
- 황건철(공 55)
- 황현상(의 55)**

뉴욕

- 강교숙(간 73)
- 강성진(의 53)**
- 강에드워드(사 60)
- 계동휘(치 67)
- 고순정(간 69)
- 고애자(음 57)**
- 곽노섭(문 45)
- 권문용(미 61)
- 권영국(상 60)
- 권영대(공 69)
- 권정덕(의 58)
- 금영천(약 72)
- 김광현(미 57)
- 김광호(의 66)
- 김기택(수 81)
- 김동환(약 60)
- 김문경(약 61)
- 김병권(문 63)
- 김복영(간 69)
- 김세환(공 65)
- 김승호(공 71)**
- 김영호(문 62)
- 김영무(공 75)**
- 김영수(법 66)
- 김유선(약 53)
- 김영철(의 55)
- 김영휘(법 80)**
- 김영호(간 53)
- 김원주(의 54)
- 김용연(문 63)
- 김우영(공 54)
- 김옥현(의 59)
- 김유순(간 64)
- 김진희(약 56)
- 김정희(간 69)**
- 김종원(생 58)**
- 김창수(약 64)**
- 김창화(미 65)**
- 김학자(간 59)**
- 김현중(공 63)
- 리준무(음 65)
- 문석면(의 52)
- 민인기(의 67)**
- 민준기(공 59)
- 박근이(공 60)
- 박경희(음 57)
- 박상원(문 69)
- 박수안(의 59)
- 박승복(공 58)
- 박승화(간 69)
- 박재은(미 63)
- 방준재(의 63)
- 배상규(약 60)**
- 배정희(사 54)
- 변호련(간 63)
- 사랑(의 63)
- 서중선(사 57)**
- 석창호(의 66)
- 김택수(의 57)
- 성기호(약 57)
- 손갑수(약 59)
- 손원배(농 70)
- 송근숙(간 66)
- 송기인(의 60)
- 송용길(대 69)
- 신두식(의 58)
- 신용남(농 70)
- 신정자(간 62)
- 신춘희(간 56)
- 안태홍(상 65)**
- 양명자(사 63)
- 양성택(상 66)
- 오용호(의 66)
- 오용환(약 68)
- 유규환(사 60)
- 우상영(상 59)
- 원인순(문 67)
- 유재섭(공 65)
- 유택수(문 58)
- 유호근(문 71)
- 윤병남(사 62)**
- 윤영철(공 57)
- 윤인숙(간 63)
- 윤철(문 54)
- 윤희정(문 59)
- 이강욱(공 70)**
- 이강홍(상 60)
- 이명중(농 72)
- 이문봉(미 76)
- 이상근(경 84)
- 이상우(의 56)
- 이영일(의 60)
- 이영민(의 59)
- 이영재(사 58)

- 이유성(사 57)
- 이전구(농 60)
- 이정은(의 58)
- 이재덕(법 60)
- 이재진(의 59)
- 이중호(의 63)**
- 이태봉(의 56)
- 이태안(의 61)
- 이해청(약 62)
- 이형근(수 60)
- 이희우(공 50)**
- 전성진(사 54)
- 전현영(공 64)
- 김희경(음 73)
- 정동성(상 58)
- 정인용(의 64)
- 정해민(법 55)
- 정화용(사 61)
- 조남천(사 59)
- 조대영(공 61)
- 조득환(의 61)**
- 조중수(공 64)
- 조태환(상 56)**
- 진봉일(공 50)
- 차국만(상 56)
- 차수만(약 71)
- 천수준(공 70)
- 최수용(사 55)
- 최승용(의 61)**
- 최영태(문 67)
- 최정용(시 63)
- 최한용(농 58)
- 최혁(음 72)
- 최형우(법 69)
- 한병용(문 71)
- 한승순(간 70)
- 허성현(의 58)**
- 허영자(약 63)
- 허용웅(상 63)
- 임정란(음 76)
- 전병림(공 54)
- 정지선(상 58)
- 정준일(간 67)
- 정한규(의 63)
- 조태목(사 60)**
- 천동우(공 63)
- 최경선(농 65)
- 한상봉(수 67)
- 홍병의(공 68)**
- 황동하(의 65)
- 황민익(사 59)

뉴잉글랜드

- 곽노균(상 51)
- 김경일(공 58)**
- 김기남(간 67)
- 김선희(약 59)
- 김성곤
- 김옥동(사 58)
- 김형범(문 57)
- 박영철(농 64)**
- 박종근(의 56)
- 김현중(공 63)
- 송미자(농 62)
- 윤영자(미 60)
- 윤상래(수 62)
- 이강원(공 66)
- 이규진(약 60)
- 이금하(문 69)**
- 이문준(공 73)**
- 이의인(공 68)**
- 임영호(공 72)
- 장용복(공 58)
- 정선주(간 68)**
- 정정욱(의 60)**
- 조만연(상 58)
- 故 주창훈(의 50)**
- 최선희(문 69)**

네바다

- 김영중(치 66)**
- 김용재(의 60)**
- 김택수(의 57)
- 김상순(상 67)
- 김상수(약 59)
- 이학은(약 57)
-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 남세현(공 67)
- 문성인(공 88)
- 변우진(농 70)
- 성옥진(치 87)
- 송세진(치 88)
- 송창원(문 53)
- 이창재(문 51)
- 주한수(수 62)

미시간

- 고선희(문 63)
- 고광국(공 54)**
- 김국희(공 56)**
- 김우신(의 60)
- 김재석(의 61)
- 김정희(음 56)
- 김희주(의 62)
- 남성희(의 56)**
- 신동화(문 55)
- 오동환(의 65)**
- 윤희정(문 59)
- 이강욱(공 70)**
- 이강홍(상 60)
- 이명중(농 72)
- 이문봉(미 76)
- 이상근(경 84)
- 이상우(의 56)
- 이영일(의 60)
- 이영민(의 59)
- 이영재(사 58)

- 하계현(공 64)
- 한영신(생 86)

북가주

- 강윤희(간 72)
- 강재호(상 57)**
- 강정수(문 61)
- 권오형(사 61)
- 김기덕(문 74)
- 김성철(공 82)**
- 김정희(법 56)**
- 김현영(공 64)
- 김희경(음 73)
- 남광순(음 64)
- 노상규(공 60)
- 민병덕(상 69)
- 박경용(약 63)
- 박서규(법 56)
- 박영훈(공 72)**
- 박종성(법 53)
- 부영우(치 72)
- 손창순(공 69)
- 송영훈(상 57)
- 신규영(공 64)**
- 안호삼(문 58)
- 오명주(간 77)
- 온기철(의 65)
- 윤성희(사 58)
- 위장호(의 67)**
- 이강우(문 59)
- 이성원(공 65)
- 이성형(공 57)
- 이은수(사 64)
- 이장우(문 72)
- 이정남(공 63)
- 이창한(공 56)
- 이광모(공 55)**
- 임승배(문 66)**
- 임정란(음 76)
- 전병림(공 54)
- 정지선(상 58)
- 정준일(간 67)
- 정한규(의 63)
- 조태목(사 60)**
- 천동우(공 63)
- 최경선(농 65)
- 한상봉(수 67)
- 홍병의(공 68)**
- 황동하(의 65)
- 황민익(사 59)

- 하계현(공 64)
- 한영신(생 86)

오레곤

- 계지영(문 60)
- 김영자(간)
- 박희진(농 78)**
- 최용성(의 55)**
- 한국남(공 57)**
- 한국준(사 60)**

오하이오

- 김태웅(의 61)
- 이강우(문 59)
- 이성원(공 65)
- 이성형(공 57)
- 이은수(사 64)
- 이장우(문 72)
- 이정남(공 63)
- 이창한(공 56)
- 이광모(공 55)**
- 임승배(문 66)**
- 임정란(음 76)
- 전병림(공 54)
- 정지선(상 58)
- 정준일(간 67)
- 정한규(의 63)
- 조태목(사 60)**
- 천동우(공 63)
- 최경선(농 65)
- 한상봉(수 67)
- 홍병의(공 68)**
- 황동하(의 65)
- 황민익(사 59)

샌디에고

- 남정우(사 56)**
- 오계환(공 64)
- 윤진수(의 57)
- 이문상(공 62)
- 이영신(간 77)
- 이휘영(법 59)

시카고

- 강영국(수 67)**
- 구경희(의 59)**
- 구영미
- 김길준(의 59)**
- 김갑중(의 57)
- 김규호(의 58)
- 김동희(공 66)
- 김병윤(문 55)
- 김사직(상 59)
- 김성일(공 68)
- 김승주(간 69)**
- 김용환(공 71)
- 김윤하(공 66)**
- 김정수(문 69)
- 김정주(문 60)
- 김현주(문 61)
- 노영일(의 62)
- 림근식(문 57)
- 민영기(공 65)**
- 박정일(의 61)
- 박창욱(공 56)**
- 서상현(의 65)
- 소진문(치 58)
- 손인섭(문 68)
- 송재현(의 46)
- 신석균(문 54)
- 안신훈(문 61)
- 안영화(문 57)
- 안창현(의 55)
- 오명자(간 60)
- 유기정(간 72)**
- 육길원(사 59)**
- 윤경순(사 61)
- 윤덕상(치 62)**
- 윤봉수(간 69)
- 이경미(미 69)
- 이덕수(문 58)
- 이동균(공 75)
- 이소희(간 68)
- 이승자(사 60)
- 이시영
- 이영섭(수 56)
- 이영우(문 66)
- 故 이윤모(농 57)**
- 이종일(의 65)
- 이종일

- 임영신(의 56)
- 임현재(의 59)
- 장윤일(공 60)
- 전현일(농 62)**
- 정승규(공 60)
- 정연학(공 63)
- 정은성(음 04)
- 조대현(공 57)
- 최대한(의 53)
- 최해수(의 53)**
- 최희수(문 67)
- 최희수(문 62)
- 한재은(의 59)
- 홍철인(약 57)
- 황소나**
- 황치용(문 65)

- 정원자(농 62)
- 조병선(의 65)**
- 조영희(문 66)
- 조화우(문 61)
- 전건희
- 최경수(문 54)
- 최동호(문 68)
- 최재귀(미 63)
- 한인생(수 60)
- 홍영석(공 58)
- 황보한(공 56)

알래스카

- 윤재중(농 55)

아리조나

- 김기준(공 61)
- 김영서(상 54)
- 김중구(수 73)**
- 김학래(공 60)
- 김현희(간 59)
- 노한승(농 56)
- 백낙영(상 61)**
- 서광모(공 65)
- 송용덕(의 57)
- 오경호(수 60)
- 윤영돈(법 59)
- 이종석(의 54)**
- 임수암(공 62)**
- 임한웅(공 60)
- 정선휘(공 65)
- 최덕순(간 59)**
- 한성수(의 54)**

워싱턴DC

- 강길중(약 69)
- 고우환(법 57)
- 곽명수(문 65)
- 권오근(상 58)
- 권정도(치 68)
- 권철수(의 63)
- 김기봉(공 63)**
- 김내도(공 62)**
- 김동훈(법 56)
- 김명자(법 52)
- 김명철(공 60)
- 김영란(사 58)**
- 김용덕(의 53)
- 김원호(공 64)
- 김영태(치 88)
- 김해식(공 59)
- 김희주(의 62)**
- 나연수(사 54)
- 남철일(사 69)
- 박영대(상 63)
- 박영호(공 64)
- 박은희(미 68)
- 박인영(의 69)
- 박일영(문 59)
- 박후우(문 61)**
- 백순(법 58)
- 백용현(공 64)
- 서윤석(의 62)
- 서취열(의 57)
- 이중영(문 61)
- 정신호(사 78)
- 한광수(의 57)

캘리포니아

- 김기현(문 52)
- 마동일(의 57)
- 이중영(음 58)
- 정신호(사 78)
-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 김기훈(상 56)
- 라찬국(의 57)
- 신경호(의 57)
- 최창송(의 52)**
- 홍성휘(공 56)

텍사스

- 김정환(공 81)**
- 박영규(사 66)
- 박유미(약 62)
- 박태우(공 64)
- 송요한(문 73)
- 유환(농 56)
- 윤영주(문 60)**
- 이석호(농 78)
- 전중희(공 56)
- 이영목(공 59)
- 이윤주(상 63)
- 이재승(의 55)
- 이중국(의 52)
- 이준영(치 74)
- 이진상(공 57)**
- 이철수(공 61)
- 이해청(약 62)

플로리다

- 김동한(문 53)
- 김성준(의 55)

- 김중권(의 63)
- 박창익(농 64)
- 오석일(의 64)
- 이정필(의 58)
- 임필순(의 54)
- 정의철(의 55)**
- 조동건(공 69)
- 최준희(의 58)

필라델피아

- 강준철(사 59)**
- 김경희(생 71)
- 김국간(치 64)
- 김구화(상 63)
- 김순주(치 95)
- 김영우(공 55)
- 김정현(공 68)
- 김재술(약 58)
- 김진우(공 62)
- 김현영(수 58)
- 배성호(의 65)
- 서의원(공 66)
- 서중민(공 64)
- 성기호(상 59)
- 성정호(약 59)**
- 손재욱(생 77)
- 송성근(공 50)
- 신선자(사 60)
- 신성식(공 56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중권(의63)	200
강신용(사73)	리준무(음65)	200
구철희(의78)	문석면(의52)	200
권기상(대72)	박순영(법56)	75
권봉성(문 64)	방준재(의63)	200
김기형(상75)	서량(의63)	75
김난영(공53)	선종철(의57)	100
김동석(음64)	신응남(농70)	2,400
김병연(공68)	오용호(의66)	200
김새담(법55)	이강홍(상60)	200
김영(수63)	이재덕(법60)	75
김영봉(사60)	이전구(농60)	700
김영중(치66)	조남천(사59)	350
김영희(간54)	조태환(상56)	150
김은숙(미62)	차수만(약71)	300
김은중(상59)	최수용(상55)	500
김종섭(문66)	최한용(농58)	1,500
김종표(법58)	최혁(음72)	200
나두섭(의66)	한승순(간70)	150
노명호(공61)	허선행(의58)	400
노진걸(사70)	홍종만(공64)	200
박용필(문66)	미네소타	
박우선(공57)	문성인(공88)	50
박원준(공53)	네바다	
박은숙(미62)	정상진(상59)	350
박종수(수58)	미시간	
박혜란(음72)	김희주(의62)	225
방석훈(농55)	남성희(의56)	100
성주경(상68)	오동환(의65)	400
송영두(공59)	윤효윤(의56)	100
신동국(수76)	이성길(의65)	100
신영찬(의62)	이정화(음56)	200
안혜정(생77)	이재승(의55)	75
오윤표(음56)	뉴잉글랜드	
오찬수(약57)	윤상래(수62)	500
오흥조(치56)	박영철(농64)	100
유의영	박종승(의56)	200
이건일(의62)	정선주(간68)	100
이명선(상58)	故 주창준(의50)	300
이법식(공61)	북가주	
이병준(상55)	부영무(치72)	200
이소희(의61)	이관모(공55)	200
이장길(치63)	한만섭(문48)	500
이창신(법57)	한상봉(수67)	500
임낙균(약64)	황만익(사59)	200
장동석(문66)	샌디에고	
전낙관(사60)	이휘영(법59)	75
전원일(의77)	임춘수(의57)	200
정근희(의65)	플로리다	
정동주(생72)	김중권(의63)	200
정신(대92)	오석일(의64)	200
정재훈(공64)	임필순(의54)	200
정혜령(간72)	정의철(의55)	200
최용완(공57)	조경호(의66)	200
최종권(문59)	하트랜드	
최진석(법64)	고 차봉희(의51)	500
한성구(상53)	이상강(의70)	10,000
한귀희(미68)	최은관	500
한홍택(공60)	오레곤	
황현상(의55)	김상순(상67)	200
뉴욕	박희진(농78)	300
강에드워드(사60)	워싱턴	
강상진(의53)	민영기(공65)	75
강창홍(의63)	이명자(간74)	800
고애자(음57)	텍사스	
권영국(상60)	박영규(사66)	200
금영천(약72)	이석호(농78)	200
김명철(공60)	진기주(상60)	500
김승호(공 71)	황명규(공61)	200
김완주(의54)		
김은희(간78)		
김중원(사58)		

워싱턴DC	김길중(약69)	500
고무환(법57)	권철수(의68)	200
김동훈(법56)	김응환(치88)	200
김은환(경84)	남옥현(경84)	1,000
박은희(미68)	박은희(미68)	100
박평일(농69)	박평일(농69)	900
박홍우(문61)	변광록(간72)	200
백순(법58)	백순(법58)	200
서윤석(의62)	서윤석(의62)	200
석균범(문61)	석균범(문61)	200
석보환(사68)	석보환(사68)	200
엄달용(공69)	엄달용(공69)	200
오인환(문63)	오인환(문63)	175
유영준(의70)	유영준(의70)	25
이건형(수54)	이건형(수54)	75
이내원(수58)	이내원(수58)	275
이선구(문65)	이선구(문65)	200
이연주(치88)	이연주(치88)	200
이영목(공59)	이영목(공59)	200
정평희(공71)	정평희(공71)	75
조화유(문61)	조화유(문61)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소진문(치58)	소진문(치58)	400
이영섭(수56)	이영섭(수56)	75
이용락(공48)	이용락(공48)	1,000
임영신(의56)	임영신(의56)	100
정의철	정의철	250
최희수(문67)	최희수(문67)	200
한경진(상59)	한경진(상59)	200
필라델피아	윤경숙(문59)	200
이만택(의52)	이만택(의52)	400
이성숙(생74)	이성숙(생74)	200
이승공(의63)	이승공(의63)	200
정태광(공74)	정태광(공74)	100
지흥민(수61)	지흥민(수61)	200
진병학(의57)	진병학(의57)	100
손재옥(생77)	손재옥(생77)	200
하와이	김용진(공 50)	100
조지아	정양수(의60)	25
김용건(문48)	김용건(문48)	200
송용덕(의 57)	송용덕(의 57)	200
테네시	김경덕(공 75)	100
캐롤라이나	한광수(의57)	5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388
커네티컷	김기훈(상56)	200
최창승(의52)	최창승(의52)	500
애리조나	진명규(공70)	200
하트랜드	김시근(공72)	100
광고후원금	뉴욕	
김기택(수81)	김기택(수81)	240
김승호(공71)	김승호(공71)	1740
백승원(의73)	백승원(의73)	240
석창호(의66)	석창호(의66)	240
신응남(농70)	신응남(농70)	240
이전구(농60)	이전구(농60)	480
이창석(의72)	이창석(의72)	240

남가주	강호석(상81)	240
고석자(인72)	고석자(인72)	600
김경무(공69)	김경무(공69)	640
김양희(음77)	김양희(음77)	3,700
김원탁(공65)	김원탁(공65)	480
김은중(상59)	김은중(상59)	600
김자성(의79)	김자성(의79)	1,500
김정빈(공66)	김정빈(공66)	500
나두섭(의66)	나두섭(의66)	200
나정자(간70)	나정자(간70)	400
미주동창회(11대)	미주동창회(11대)	1,000
미주재단	미주재단	19,000
민일기(약69)	민일기(약69)	500
박수경(생84)	박수경(생84)	5,100
박제환(문75)	박제환(문75)	500
박찬호(공58)	박찬호(공58)	300
서동영(사60)	서동영(사60)	480
서치원(공69)	서치원(공69)	2,500
신동국(수76)	신동국(수76)	240
안혜정(생77)	안혜정(생77)	800
양수진(간80)	양수진(간80)	500
이강원(인76)	이강원(인76)	240
이경희(인83)	이경희(인83)	240
이기준(법54)	이기준(법54)	500
이명선(상58)	이명선(상58)	1,000
이범모(치74)	이범모(치74)	250
이병준(상55)	이병준(상55)	1,200
이상대(농80)	이상대(농80)	240
이승훈(상 74)	이승훈(상 74)	240
이원택(의65)	이원택(의65)	2,200
이종모(간69)	이종모(간69)	480
이태로(법50)	이태로(법50)	240
임춘택(상68)	임춘택(상68)	640
장준(인85)	장준(인85)	240
정인환(법54)	정인환(법54)	600
정재훈(공64)	정재훈(공64)	240
주영세(사59)	주영세(사59)	400
차민영(의76)	차민영(의76)	7,500
최무식(약66)	최무식(약66)	240
최용준(수81)	최용준(수81)	400
한태호(인75)	한태호(인75)	240
한효동(공58)	한효동(공58)	300
홍훈정(음70)	홍훈정(음70)	400
워싱턴DC	남옥현(경84)	9,300
이내원(사58)	이내원(사58)	1,000
이태영(법60)	이태영(법60)	1,8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공57)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박원준(공53)	700
배병욱(음 58)	배병욱(음 58)	300
이범모(치74)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홍선일(공71)	100
조지아	한성수(의54)	200
샌디에고	임춘수(의57)	200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최재귀(미63)	최재귀(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오레곤	김영자(간)	100
플로리다	오석일(의64)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하트랜드	김시근(공72)	100
장학기금	남가주	
강효남(공67)	강효남(공67)	1,000
권기상(대72)	권기상(대72)	100
권봉성(문64)	권봉성(문64)	1,000
김경무(공69)	김경무(공69)	2,000
김병연(공68)	김병연(공68)	1,000
김상찬(문65)	김상찬(문65)	6,000
김종섭(문66)	김종섭(문66)	10,000
박원준(공53)	박원준(공53)	300
박정모(문 66)	박정모(문 66)	1,000
서치원(공69)	서치원(공69)	10,000
오흥조(치56)	오흥조(치56)	1,000
이법식(공61)	이법식(공61)	100
임춘택(사 68)	임춘택(사 68)	500
전상옥(사52)	전상옥(사52)	100
하기환(공66)	하기환(공66)	500
한홍택(공60)	한홍택(공60)	50,000
현기용(문65)	현기용(문65)	200
하트랜드	이상강(의70)	11,000
뉴욕	선종철(의57)	100
신응남(농70)	신응남(농70)	200
이강홍(상60)	이강홍(상60)	500
미시간	고광국(공54)	10,000
이정화(음66)	이정화(음66)	175
북가주	신규영(공64)	200
최경선(농65)	최경선(농65)	1,000
한만섭(문48)	한만섭(문48)	500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이용락(공48)	이용락(공48)	1,300
최혜숙(의53)	최혜숙(의53)	100
커네티컷	故유시영(문68)	10,000
워싱턴 DC	오인환(문63)	175
유영준(의74)	유영준(의74)	100
조지아	이종석(의54)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윤경숙(문59)	윤경숙(문59)	100
유영걸(의70)	유영걸(의70)	2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1,100	뉴욕	6,000
2,000	뉴잉글랜드	2,000
2,000	워싱턴DC	2,000
2,000	필라델피아	2,000
2,400	시카고	2,400
800	워싱턴	800
1,600	조지아	1,600
600	오레곤	600
600	플로리다	600
600	오하이오	600
200	알래스카	200
3,000	남가주	3,000
2,600	북가주	2,600
400	캐롤라이나	400
300	하와이	300
600	미네소타	600
550	하트랜드	550
500	미시간	500

튀르키예 기부금	하트랜드	김시근(공72)	100
남가주	노명호(공61)	2,000	
이호진(간74)	이호진(간74)	100	
뉴욕	조상근(법69)	1,000	
Charity Fund(나눔)	남가주		
이법식(공 61)	이법식(공 61)	100	
임낙균(약 64)	임낙균(약 64)	3850	
뉴욕	차수만(약71)	5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시카고	강영국(수 67)	1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구상선	50	
노명호(공 61)	노명호(공 61)	1,000	
유의영	유의영	100	
이정남	이정남	200	
이호진(간74)	이호진(간74)	100	
서진(간56)	서진(간56)	3,000	
안혜정(생77)	안혜정(생77)	300	
한홍택(공60)	한홍택(공60)	1,000	
홍중화(약74)	홍중화(약74)	500	
북가주	이장우(문72)	100	
뉴욕	민준기(공59)	100	
조상근(법69)	조상근(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문48)	200	
유성무(상66)	유성무(상66)	300	
오레곤	한영준(사60)	100	
워싱턴DC	최재귀(미63)	200	
커네티컷	유시영(문68)	500	
워싱턴	이길송(상57)	100	
시카고	김신홍(생59)	300	
재환수(사61)	재환수(사61)	200	
휴스턴	진기주(상60)	1,0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200	
Brain Network	남가주		
한홍택(공60)	한홍택(공60)	500	
시카고	이용락(공48)	200	
조종행(의63)	조종행(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워싱턴 DC	서휘열(의57)	300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박중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홍선례(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화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북加州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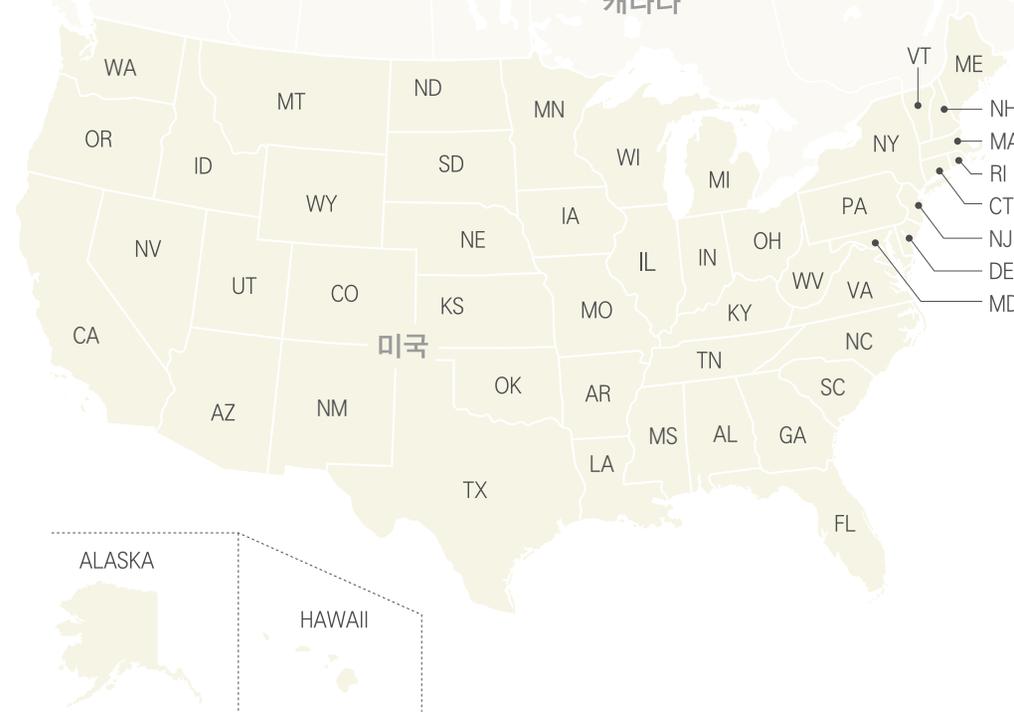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 지부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중범(공대 83) T: (203) 909-2387
 kimjongb@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tf@hot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 91)
 회장 kunhok@gmail.com

하를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 98) (310) 689-6366
 syeom@vols.utk.edu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choi@hotmail.com

SEONGNAM PHILHARMONIC ORCHESTRA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 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 PEACE CONCERT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Mezzo Soprano

백재은
Jae-Eun Paik



Conductor

금난새
Gum Nanse

Tenor

허영훈
Philipp. Heo



Piano

찰리 올브라이트
Charlie Albright



7:30 p.m. Wednesday, June 28, 2023

The Music Center's Walt Disney Concert Hall

Ticket info. 818.321.2214. snuua.peaceconcert@gmail.com

Korea-US Alliance Foundation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Army U.S. Chapter / Korean Veterans Association / R.O.K. Marine Corps V.A
Korean ROTC Association in Southern California /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Hannam Chain Supermarket / Samick Music Corp.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